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최태원*

〈차 례〉

1. 새로운 조선연구의 흐름 속에서
2. 문학연구의 기초와 문학사의 개관
3. 문학연구회의 탈태와 인식의 심화
4. 『조선문학-소개와 연구』의 성과와 한계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에서 일본인의 한국근대 문학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핀 것이다. 196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식민주의 또는 식민지 지배 책임의 자각 위에서 스스로를 기존의 '조선학'과 구별하고자 하는 시대적·집단적 흐름이 생겨났고, 외국학으로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도 그 새로운 흐름 속에서 태동했다. 1960년대 초반 일본조선연구소의 문학연구회와 <조선문학의 모임>(1963~64) 그리고 1960년대 중후반의 독서모임과 문학사모임을 거쳐 1970년 <조선문학의 회>가 결성된 것이다. '일본인의 조선문학연구', '하나의 조선문학'을 표방한 <조선문학의 회>는 4년여에 걸쳐 동인지 『조선문학-소개와 연구』와 『현대조선문학선』을 발간하며 근현대 한국문학의 번역과 연구에 진력했다. 오무라 미스오, 가지이 노보루, 다니카 아키라, 조 쇼키치 등의 <조선문학의 회> 동인들은 다양한 직업과 세계관을 지닌 아마추어였지만, 이들의 활동은 외국문학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고 연구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인들은

* 이 글은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두 번의 심포지엄(2012년, 2021년)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소의 배려와 아량에 깊이 감사드린다.

** 도쿄대학(東京大学) 교양학부, 특입준교수

메이지시대 이래의 일본인이 한국문학을 대하는 자세가 비주체적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한국문학을 직접 번역하고 그 가치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체성의 강조는 남북한 문학연구의 분단과 그로 인한 문학사의 결락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동인들은 남북의 연구성과를 부단히 참조하면서도 이념 대립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동인지 발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후로도 동인 일부는 번역과 연구를 지속하여 학술적 기초를 축적했고 1970년대 말에는 이들이 대학 교원으로 부임한다. 뒤늦게나마 한국근대문학연구가 일본 학술제도 안에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주제어] 일본에서의 한국근대문학연구, 조선문학의 회, 주체성, 일본조선연구소, 오무라 마스오, 가지이 노보루, 다니카 아키라, 조 쇼키치

1. 새로운 조선연구의 흐름 속에서

1970년 가을 일본에서 결성된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는 ‘일본인의 조선근대문학연구’를 기치로 내걸었다.¹⁾ 독학이나 강습회 등을 통해 조선어를 배운 동인들은 직업이나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조선문학을 번역하고 연구하겠다는 열의 하나로 뭉쳤다. 아마추어 집단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마침내 “일본인이 주체적으로 조선문학에 관계하려고 한, 최초의 동인지”²⁾ 『조선문학-소개와 연구』(1970.12~74.8)와 두 권의 『현대조선문학선』(1973,1974) 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동인들 중 일부가 대학에 부임하면서 조선근대문학연구는 학문분과 체계 안으로 진입했다.³⁾ 그런 점에서 <조선문학의 회>는 “일본인에 의한 한국근대문학연구

1) ‘조선연구’, ‘조선학’은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한국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조선어’, ‘조선근대문학연구’ 역시 일본의 관례적인 용법을 감안해 사용한 것이다. 각각 일본에서의 한국어, 일본에서의 한국근대문학연구에 대응한다.

2) 川村湊, 『日本人による朝鮮文學研究(五人十一人)の始まり』, 『異文化』 5, 法政大学国際文化学部, 2004, 37쪽. <조선문학의 회>에 관한 한국어 논문으로는 이영호, 『1970년대 일본에서의 조선문학연구 경향 분석』, 『일본학보』 107, 한국일본학회, 2016.5. 두 논문 모두 <조선문학의 회>를 다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동인지 중심의 분석에 머물러 있다.

3)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1933~)는 1964년부터 와세다대학 전임교원으로 중국어와 조선어 등을 가르치다 1978년 같은 대학 어학교육연구소로 소속을 옮겨 조선어 전임이 됐다. 가지이 노보루(梶井陟, 1927~88)는 1978년 그해 개설된 도야마대학 조선어조선문학코스의 주임교수로 부임했다. 조 쇼키치(長塚吉, 1941~88)도 같은 해 도쿄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했다.

구의 조직적, 학술적 연구”의 시작으로 평가받는다.⁴⁾ 필자도 이런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조선근대문학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960년대 들어 일본에서 본격화되는 새로운 조선연구에 대해 잠시 부연하자. 잘 알려진 것처럼 전후 일본의 조선학은 식민지에서 돌아온 학자들의 결집으로 시작됐다. 이들로서는 “종전 후 우리 나라 조선 연구자 대부분이 연구 문헌에서 멀어지고 연구 대상도 잃어버린, 심지어 세간에서 그 학문적 가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를 돕고 장려하여 그 성과를 결집할 수 있는 기관”이 절실했다.⁵⁾ 다행히 덴리교의 도움으로 1950년 10월 조선학회가 창립되고 그 이듬해인 1951년 5월에는 학회지 『조선학보』가 창간됐다. 학회 임원진은 덴리교 및 덴리대학 관계자와 구 경성제대 교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경성제대 교수를 역임하고 덴리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다카하시 도루(高橋亨)가 창립 및 초창기 운영의 중심에 섰다.⁶⁾ ‘조선문화의 선명(宣明), 일조양국 문화의 교류와 발전, 세계 학계의 신분야 개혁’을 목적으로 내건 조선학회는 언어와 역사를 포함한 인문사회 모든 분야를 망라했고, “기성의 대가가 기성의 문제의식과 기성의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발표”,⁷⁾ 즉 문헌 비판이나 사실 고증 등의 학문적 기술을 엄수했다. 그러나 기존의 조선학이 존립할 수 있었던 제도와 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⁸⁾

기존의 조선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조선사연구회의 창립과 일본조선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⁹⁾ 1959년 창립한 조선사연구회는 ‘조선연구 성과의 비판적 계승과 새로운 조선사학의 발전’을 연구회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4)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현대문학연구-역사적 반성 및 협동연구 전망』,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512쪽.

5) 『彙報-朝鮮学会の創立』, 『朝鮮學報』 1, 朝鮮学会, 1951.5, 309쪽.

6) 『座談會-二十五年をかえりみて』, 『朝鮮學報』 83, 1977.4, 195~198쪽.

7) 朝鮮研究月報編集部, 『日本における朝鮮研究の現状』, 『朝鮮研究月報』 21, 日本朝鮮研究所, 1963.9, 42쪽.

8) 미쓰이 다카시,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사학사상(像)-1950~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3, 한국사연구회, 2011.6.

9) 梶村秀樹, 『日本における朝鮮研究』(1969),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明石書店, 1993, 88~91쪽.

재일조선인 연구자와 일본인 연구자, 노선생과 학부 재학생이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풍이 마련됐고 근대 이전 부문과 근현대 부문이 대등한 수의 연구자를 확보했다.¹⁰⁾ 조선사연구회가 아카데미즘과 그 외부를 연결하여 새로운 기풍을 창출했다면, 1961년 설립된 일본조선연구소(이하 조연)는 운동 단체와 연구자를 결합하는 것으로 조선연구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조연은 “일본인의 손으로, 그것도 과학적인 입장을 굳건히 하는 조선연구”를 표방하는 한편, ‘올바른 조선인식을 바탕으로 일본과 조선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도모한다’는 실천적·운동적 성격도 분명히 했다.¹¹⁾ 인적인 면에서도 조연은 일조협회(日朝協會) 관계자(또는 일본공산당 계열의 중국 및 조선 부문 관계자)와 조선의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언어 등을 전공하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으로 나뉘볼 수 있다.¹²⁾ 조연은 ‘식민지 지배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일회담 반대 운동 등에 진력한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조선학을 궁리하고 모색하는 연구공간이기도 했다.¹³⁾ 이 글에서 주목한 가지이 노보루와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소 활동은 주로 후자의 성격에 관련된다.

어학 연구를 비롯하여 역사, 지리, 사회, 정치, 경제, 미술 혹은 일부 단체의 고전 문학 소개나 민요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문드문 남겨진 [조선연구의-인용자]

-
- 10) 朝鮮研究月報編集部, 앞의 논문, 44~46쪽. 정중현에 따르면, 이 시기의 한국 연구자들도 일본의 조선학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분위기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중현, 『조선학/한국학의 국교정상화』,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291쪽.
- 11) 古屋貞雄, 『《朝鮮研究月報》創刊に際して』, 『朝鮮研究月報』 1, 1962.1, 1쪽; 『日本朝鮮研究所設立の經過』, 같은 책, 79쪽.
- 12) 설립 당시의 임원진으로는 이사장 古屋貞雄, 부이사장 四方博, 鈴木一雄, 旗田巍, 전무이사 寺尾五郎, 연구 및 편집 책임자 藤島宇内, 부소장 安藤彦太郎 등이 있었다. 고문으로는 조선사 연구의 원로급인 青山公亮, 末松保和가 참가했다. 연구소 멤버로는 畑田重夫, 川越敬三, 吉岡吉典, 木元賢輔 등의 활동가와 渡部学, 小沢有作, 宮田節子, 梶村秀樹, 桜井浩, 菅野裕臣 등의 연구자들이 결합했다.
- 13) 일본조선연구소에 대해서는 和田春樹, 『日本朝鮮研究所を考ふる』, 和田春樹·高崎宗司, 『検証日韓関係60年史』, 明石書店, 2005; 板垣竜大, 『日韓会谈反対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日本朝鮮研究所の植民地主義論を中心に-』, 『思想』 1029, 岩波書店, 2010.1; 장미현,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의 ‘식민사상’ 제기와 ‘고도성장체제’ 비판』, 『역사문제연구』 27, 역사비평사, 2012.상반기; 樋口雄一, 『解説 1』, 井上學·樋口雄一編,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3』, 緑蔭書房, 2017.

축적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초기의 것을 제외하고 그들의 업적에 일관되게 보이는 것은 조선을 대등한 위치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의 결락(欠落)이다. 특히 우리가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근현대 조선문학 분야만은 늘 행하니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였다.¹⁴⁾

식민지기의 조선학은 근대 학문의 언어로 대상을 세밀하게 분절하고 분류함으로써 ‘조선’을 남김없이 포획하려 했지만, 그 안에 “조선인이 주인공이고 주체인 세계”¹⁵⁾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을 문화의 총체, 독립된 역사의 소유자로 보려는”¹⁶⁾ 태도의 부재, “민족의 생활 감정과 생명의 숨결을 내면으로부터 파악하려는 감성”¹⁷⁾의 결여가 조선문학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다. “식민통치 삼십몇 년간, 조선어로 근현대 조선문학에 접근하고자 했던 일본인이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¹⁸⁾이 패전 후에도 십수 년간 계속됐다. 마침내 새로운 조선연구의 흐름 속에서 조선문학에 뜻을 품은 이들이 하나둘 나타났지만, 그들은 곧 조선근대문학연구가 자국의 조선학 안에서 공백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과 맞닥뜨려야 했다. 어쩌면 공백을 공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질이 그들을 조선문학연구로 이끈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의했다. 첫째, <조선문학의 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했다. 가지이와 오무라는 1960년대 초반 일본조선연구소 내 문학연구회(이하 문학연) 활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문학연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선문학을 일생의 과제로 삼았다. 두 사람에게 문학연은 일종의 원점이었다. 둘째, 조선근대문학연구가 대학 밖에서 출현하여 대학 안으로 진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대라는(가능성과 한계의) 조건과 연관짓고자 했다.

14) 『創刊のことば』,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 朝鮮文学の会, 1970.1, 2쪽.

15) 梶村秀樹, 『朝鮮語で語られる世界』(1975), 『梶村秀樹著作集 第1巻』, 明石書店, 1992, 81쪽.

16) 山田明(田中明), 『朝鮮文学への日本人のかかわり方』, 『文学』 38(11), 岩波書店, 1970.11, 94쪽.

17) 大村益夫, 『日本における朝鮮現代文学の研究・翻訳小史』, 『青丘学術論集』 1, 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1991.2, 299쪽.

18) 梶井陞, 『日本の中の朝鮮文学-その一』,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2, 1974.8, 65쪽.

안보투쟁(일본),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한국), 문화대혁명(중국), 유일사상체계의 대두(북한) 등 동아시아의 1960년대는 격변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한일관계로 보자면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이 1965년 조약 체결로 일단락되면서 한일관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조선학 내부에서는 기존의 조선학과 스스로를 구별하고자 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다. 조선사연구회, 일본조선연구소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시대와의 교감 속에서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싹이 텄다. 셋째, 동인들의 문학사 인식의 성립과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문학사 관련 논문뿐만 아니라 역사 해설, 참고문헌, 번역 작품의 선택 경향 등을 통해 이들의 문학사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를 기울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시기의 문학사 인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형성기라는 한계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제대로 된 역사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이르는 전체 연구사 속에서 그 위치를 다시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1960~70년대의 형성기로 서술 대상을 제한했다. 초기의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⁹⁾

2. 문학연구의 기초와 문학사의 개관

1) 문학연구회와 〈조선문학의 모임〉

가지이 노보루(梶井陟)와 오무라 마사오(大村益夫)는 1962년 조연의 일원

19)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 전반에 대해서는 오무라 마사오 선생의 글과 대담, 인터뷰, 강연회 기록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大村益夫, 『日本における朝鮮現代文学の研究・翻訳小史』, 『靑丘學術論集』 1,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1.2; 오무라 마사오·호테이 토시히로, 『대담-한국문학에서 일본은 무엇인가』(1998), 『오무라 마사오 저작집 4』, 소명출판, 2017;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오무라 마사오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 4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3; 광형덕, 『저자 인터뷰-조선문학 연구자 오무라 마사오의 삶과 문학』, 광형덕 옮김, 『오무라 마사오 저작집 4』, 소명출판, 2017; 大村益夫, 『朝鮮文学研究を志して五十年』, 『植民地文化研究-資料と分析』 18, 植民地文化学会, 2019.

이 됐다. 당시 가지이는 중학교 이과 교사였고, 오무리는 도쿄도립대학 대학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한 고교 교사였다. 두 사람은 조연의 연구부문 중 하나인 어학문학연구회(이하 어문연)에 참가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선어 능력을 갖춘 이들이 어문연에 모여 조선어 강습과 조선문학 번역 등의 활동을 도모했는데, 성원으로는 가지이와 오무라 외에 나카가미 히데코(中神秀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간노 히로미(菅野裕臣)가 있었다. 나카가미는 전 시기에 조선문학 출판 관련 일을 한 적이 있고,²⁰⁾ 가지이는 도립 조선인학교에 재직하면서 『조선어 입문』(1951)을 내기도 했다. 오무라, 가지무라, 간노는 1930년대생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동양학(중국문학, 동양사, 몽골어)을 전공하고 저마다의 이유로 조선학으로 진로를 바꿨거나 바꾸는 중이었다.²¹⁾

조연의 중심 인물이던 데라오 고로(寺尾五郎)는 일본에서의 조선연구가 다른 지역연구나 외국사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과 일본이 수천 년간 “어떤 때는 사제관계, 어떤 때는 친구, 어떤 때는 침략과 저항의 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조선연구를 “당사자가 자신과 관계된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인이 한 조선연구”를 축적하는 한편,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인이 한 조선연구”와 상호 교류하는 것을 조연의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²²⁾ 어문연 성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선을 연구하려면 먼저 조선어를 배워야 한다”²³⁾고 생각했다. 어문연에서는 “자신의 조선어 능력을 높이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조선어를 모르는 조선연구는 넌센스”라는 것이 어

20) 나카가미는 1942년 9월 모던일본사(이후 신태양사)에 입사했다. 이무영의 『靑瓦の家』(1943)가 출간될 때는 교정 업무를 맡기도 했다. ナカガミ ヒデコ, 『朝鮮文学の翻訳と私』, 『樹木』 1, 樹木社, 1963.2, 92~93쪽. 같은 지면에 나카가미가 번역한 「박군의 로맨스」도 실려 있다. 조명희의 「박군의 로맨스」는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실린 것을 저본으로 삼았다.

21) 가지무라 히데키(1935~89)는 도쿄대학 문학부 4학년 때 조선사를 선택한 뒤 대학원에 진학했다. 63년부터는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조수로 재직했다. 간노 히로미(1936~)는 도쿄외국어대학 몽골어과를 졸업하고 64년 도쿄교육대학 문학교육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당시 도쿄교육대학에는 경성제대 조교수 출신의 고노 로쿠로(河野六郎)가 있었다.

22) 데라오는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조선연구의 전제로 삼았다. 침략은 조선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 민중의 제 권리에 대한 억압이기도 했다. 寺尾五郎, 『運動と研究における日本人の立場・朝鮮人の立場』, 『朝鮮研究月報』 13, 日本朝鮮研究所, 1963.1, 26~27쪽.

23) 大村益夫, 『わたしと朝鮮』, 『朝陽』 2, リアリズム研究会, 1963.3, 37쪽.

문연 성원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다.²⁴⁾ 이들은 “조선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감각” 위에서 새로운 조선학의 가능성을 찾았다.²⁵⁾ 조선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식민주의로 비틀린 전후 일본의 현실을 날것 그대로 체험하는 일이었다.²⁶⁾

우리 나라에서의 조선어 학습은, 조선어의 언어학적 연구와는 별개로, 조선의 해방 이전과 이후의 양상이 현저하게 다르다. 일제 강점시대의 조선어 회화 책 대부분에 반영된 언어는 지배자의 언어였다. 책 속 회화에서 일본인은 반말로, 조선인은 존댓말로 말한다. 그러나 조선의 해방이 일제의 조선어 근절 정책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조선어는 살아 있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해방 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언어적 비정상성이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했지만, 우리 나라에서 조선어 학습 운동은 극도로 저조하여 다른 외국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일본인 조선어 학습자 상당수가 경찰, 자위대 등의 권력쪽 인간들이다. 진정한 일조우호(日朝友好)의 정신과 그들의 조선어 지식은 양립할 수 없다.²⁷⁾

가지이는 1950년 조선인학교에 부임하면서 독학으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간노는 고등학생 시절, 가지무라는 대학원 입학 후 조선어를 독학했다. 오무라도 대학원에 진학한 뒤 조선어를 배웠는데,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 조선회관에서 모국어 배우는 청년들 틈에 끼어 강습을 들었다.²⁸⁾ 비슷한 시기 나가카미도 조선회관에서 조선어를 배웠다.²⁹⁾ 전후 일본의 조선어 교육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문연 성원들은 조연에서 개설한 조선어

24) 梶井陟, 『朝鮮文学研究会の歩み(1) 初期の活動』, 『朝鮮研究』 95, 日本朝鮮研究所, 1970.6, 24쪽.

25) 梶村秀樹, 『朝鮮語で語られる世界』(1975), 86쪽.

26) 전후 일본의 조선어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쓰카모토 이사오(1934~)의 1961년 보고가 자세하다. 당시 일본 대학에 설치된 조선어 전공학과는 덴리대학의 조선문학조선어학과가 유일했고, 조선어 교육의 수요는 대부분 행정과 치안 또는 정탐에 치우쳐 있었다. 쓰카모토는 이러한 “조선어 학습의 실태 그 자체가 현재 일본의 기묘하게 왜곡된 조선관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塚本勲, 『日本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状とその展望』, 『当面の朝鮮に関する資料(第二集)』, 日本朝鮮研究所, 1961.12, 61~64쪽. 쓰카모토는 1961년부터 오사카외국어대학의 조선어강좌를 담당했고 1963년에는 그해 설치된 오사카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에 전임강사로 부임했다.

27) 菅野裕臣, 『朝鮮語教授の若干の問題点』, 『朝鮮研究月報』 15, 1963.3, 35쪽.

28) 大村益夫, 『わたしと朝鮮』, 37쪽; 大村益夫, 『朝鮮文学研究を志して五十年』, 61쪽.

29) ナカガミ ヒデコ, 『朝鮮文学の翻訳と私』, 91쪽.

강습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³⁰⁾ 나중에 〈조선문학의 회〉 동인으로도 활약하는 조 쇼키치, 오구라 히사시(小倉尚), 이시카와 세쓰코(石川節子)가 모두 조연 강습회에서 조선어를 배웠다.

번역부회로 불리기도 한 어문연은 나도향의 『행량자식』을 함께 읽었다. 텍스트는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발간한 『현대조선문학선집』 제1권(1957)에 실린 것을 이용했다. 1963년 2월 내부적으로 번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역주를 붙여 인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³¹⁾ 그 뒤에는 오무라의 제안으로 『조선문학통사』(1959)의 1920년대 부분을 읽었다.³²⁾

이 무렵 오무라는 중국문학 연구자들이 발간하던 회지 『가키노카이 월보』에 최서해의 『탈출기』를 번역하고 『해방 후의 조선문학』이라는 글을 썼다.³³⁾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오무라는 조선문학에 관심이 깊은 중국문학 연구자에 가까웠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문학을 접하는 동안 중국과 비슷한, 혹은 중국 이상으로 관계가 깊은 조선에 대해 자신이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을 통감하고”³⁴⁾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조선 민족의 발상, 사고 방법

30) 가지무라, 오무라, 조는 〈김희로 공판 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대어학숙(現代語學塾)에서 조선어 교습을 이어갔다. 가지무라와 조는 생애 마지막까지 현대어학숙에서 조선어를 가르쳤다.

31) 그 밖에 『조선가곡집』, 『현대조선문학사』 등의 출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中神秀子, 『ほんやく部会のいままでとこれから』(1963.3),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1』, 57쪽; 『活動の反省と展望-語学・文学研究部会』, 『朝鮮研究』 34, 1964.11, 4쪽.

32) 梶井陟, 『朝鮮文学研究会の歩み(2) まぼろしの朝鮮歌集』, 『朝鮮研究』 97, 1970.8, 61쪽. 윤학준도 이 무렵의 오무라가 『조선문학통사』를 열심히 읽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회관에서 처음 만난 뒤] 2, 3년이 지났을까. 김달수 씨 소개로 그가 찾아왔다. 우에노의 찾집에서 만나 한동안 잡담을 하다 (중략) 그가 가방에서 『조선문학통사』라고 하는, 잔 활자의 조선어가 빼곡하게 들어찬 책을 꺼냈다. 그는 빨간색 연필로 여기저기에 밑줄 그은 책을 펼치더니 주로 1920년대의 문학 평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다. 뭐라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놀랐다.” 尹学準, 『日本人と朝鮮語-大村益夫さんと私』, 『民主文学』 23, 新日本出版社, 1967.10, 119쪽.

33) 崔曙海, 大村益夫訳, 『脱出記(上下)』, 『柿の会月報』 20・21, 柿の会, 1962.4・6; 大村益夫, 『解放後の朝鮮文学(上下)』, 『柿の会月報』 24・25, 柿の会, 1962.11・63.1. 〈가키노카이(柿の会)〉는 도쿄도립대학 중국문학연구실 출신들의 모임으로 회지 『柿の会月報』를 발간했고, 다케우치 요시미와의 관계도 도타웠다. 60년 안보투쟁에서 다케우치가 교수직을 던진 후에도 다케우치와의 교류가 계속됐다. 오무라 마스오, 기시 요코(岸陽子) 등 독립대학 시절 제자들과의 에피소드가 다케우치의 일기에도 자주 등장한다. 『會員日録: 63.6.1~7』, 『柿の会月報』 30, 1963.6, 1~18쪽; 竹内好, 『竹内好全集 第16巻 日記(下)』, 筑摩書房, 1981. 참고로 오무라가 도쿄도립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다케우치 요시미 때문이었다고 한다. 大村益夫, 『朝鮮文学研究を志して五十年』, 60쪽.

34) 大村益夫, 『解放後の朝鮮文学(上)』, 1쪽.

그 자체를 살필 생각”³⁵⁾으로 조선문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3년 12월에는 어문연 성원이 주동하여 <조선문학의 모임>³⁶⁾을 만들었다.³⁷⁾ 그 중심에는 가지이와 오무라가 있었다. ‘올바른 조선 인식’을 취지로 “일본어를 통해서라도 조선문학을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소 안팎에서 회원을 모집했다.³⁸⁾ 모임을 발족하고 얼마 뒤 회지 『조선과 문학』도 냈다. 격월 발간을 목표로 한 20여 쪽의 간소한 잡지였다. 창간호(64.1)와 2호(64.3)에는 오무라가 「낙동강」을 번역하고³⁹⁾ 가지이가 김달수에 관한 글을 실었다. 그러나 일본어로 읽는 조선문학은 곧 벽에 부딪혔다. 모임의 화제는 어쩔 수 없이 재일조선인 작가로 기울었고 회원들의 참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조해졌다. 결국 3호(64.5) 발간을 앞두고는 사실상 활동을 마감했다.⁴⁰⁾

그러나 이 모임을 전후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우선 어문연에서 문학의 우세가 확실해졌다. 이후 어문연은 문학부회 또는 문학연구회 등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재일조선인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조선문학의 모임>은 “회원은 일본인을 주체로 하고 재일조선인 연구자가 연구회에 출석하는 것을 환영한다. 때때로 보고나 원고를 의뢰한다”는 방침 아래, 이은직과 김달수를 초청하여 ‘조선문학의 기본적 성격’(64.2), ‘나(김달수)의 작품’(64.4)이

35) 大村益夫, 『わたしと朝鮮』, 38쪽.

36) 1970년에 결성된 <朝鮮文学の会>와 이름이 같다. 두 모임이 별개라는 가지이와 오무라의 뜻을 살려, 63년 발족한 <朝鮮文学の会>는 <조선문학의 모임>으로 옮기고 70년에 결성된 모임은 <조선문학의 회>로 옮겼다.

37) 1963년 12월 10일 일본조선연구소 사무소에서 열린 설립 총회에는 16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연락처를 조연 내에 둔다’,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진다’, ‘첫 연구회는 김달수의 『玄海灘』를 주제로 한다’ 등의 결정 사항을 확인했다. 『設立總會の報告』, 『朝鮮と文学』 1, 1964.1, 1쪽. 발간 후 21명까지 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2호의 회원 명부를 보면 당시 조선어 강습에 나오던 조 쇼치키(도쿄외대 재학중)의 이름도 보인다. 『會員名簿』, 『朝鮮と文学』 2, 1964.3, 32쪽.

38) “36년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 위에서, 현대의 일본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선문학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공동의 과제로 삼아 출발하고 싶다.” 『発足にあたって』, 『朝鮮と文学』 1, 朝鮮文学の会, 1964.1, 1쪽.

39) 오무라는 복자 일부가 복원된 『현대조선문학선집』 제1권을 저본으로 사용했고, “당시 창작 활동을 함께 한 분들에게 문의하여 살린 것도 있고 (살린 점은 방점을 칩)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대목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해제〉)는 선집의 설명도 인용했다. 趙明熙, 大村益夫訳, 『洛東江』(上), 위의 책, 8쪽.

40) 梶井陟, 『朝鮮文学研究会の歩み(4) 朝鮮文学の会』, 『朝鮮研究』 99, 1970.11, 56~64쪽.

라는 주제로 모임을 열었다. 『조선과 문학』 3호에는 임전혜의 「일본에 번역·소개된 조선문학에 대하여」가 실릴 예정이었다.⁴¹⁾

1965년도 기록에 따르면, 문학연의 원래 멤버인 가지이와 오무라에 더해 임전혜와 윤학준이 정기 월례 모임에 참여했다.⁴²⁾ 조연 성원에 한정하지 않는 개방적인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끔 안우식도 참석했다고 한다. 1965년 3월까지 『조선문학통사』를 읽는 모임으로 진행하다 4월부터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임전혜와 윤학준이 함께 『조선문학통사』를 읽은 것인지 아니면 임전혜와 윤학준의 참석을 계기로 발표 위주의 모임으로 바뀐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운제의 『조선시가의 연구』에 대하여’(가지이), ‘근대시의 발생과 시조’(가지이),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민족주의문학>(오무라), ‘재일조선인의 문학운동과 문학작품’(임전혜), ‘『문학』 11월호 합평회’(전원)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렇다 할 경향이 나 공통의 주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조선연구』 44호(65.10)에 실린 「작가와 현실참여 - 남조선문학의 새로운 경향」(윤학준), 「일본에 번역·소개된 조선문학에 대하여」(임전혜), 「김소운론」(가지이), 『문학』(65.11)에 실린 「1920년대 조선문학 -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민족주의문학」」(오무라), 「장혁주론」(임전혜) 등을 이 시기의 문학연과 관련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문학연에서는 조선문학 관련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는데, 「중국어로 번역된 조선문학 작품목록」(23호)과 『《조선지광》 1927.11~1930.1 총목록」(35호), 「조선근대문학에 관한 일본어문헌 목록」(64호)이 『조선연구』에 게재됐다. 앞의 두 개는 오무라가 혼자 조사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오무라, 이시카와, 오구라,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가 공동으로 작업한 성과였다.

41) 3호는 도야마대학 가지이문고(梶井文庫)에 미발간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자료에는 1945년 이전 일본에서 번역된 조선문학 자료를 개관한 임전혜의 「日本に翻訳・紹介された朝鮮文学について 1896~1945(1)」이 실려 있다. 1회는 산문 자료에 한정하고 2회에서는 시, 민요, 민화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任展慧, 「日本に翻訳・紹介された朝鮮文学について 1896~1945 (1)」, 『朝鮮と文学』 3, 1964.5, 1쪽. 『朝鮮と文学』의 목차는 이영호, 앞의 논문, 110쪽.

42) 1965년의 문학연 활동에 대해서는 畑田重夫, 「研究ならびに教育活動の一年をふりかえて」, 『朝鮮研究』 45, 1965.11, 33~35쪽.

2) 일본인의 입장에서 읽는다는 것

가지이와 오무라의 조연 시절 관심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조선 민중의 저항’이라는 역사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1920~30년대, 그 중에서도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 집중됐다. 두 사람의 1960년대 문헌에 『조선문학통사』(이하 『통사』)가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런 경향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통사』의 인식과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탈출기』의 역자 해설은 오무라가 조선문학에 대해 처음 쓴 글인데, 여기에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문학을 읽는다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말한 통사 등을 보면, 최서해가 작품 속에서 사회변혁의 의도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높이 평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부분만 소설에서 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생활 속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적에 대한 증오와 가족간의 애정이다. 주인공이 스스로의 생활을 회고하며 가족을 버리고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위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아픔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다.⁴³⁾

오무라는 번역 저본으로 『현대조선문학선집』 제1권을 이용했고, 해설을 쓰면서는 김달수의 「나의 창작 체험」, 선집 1권의 「해제」, 『조선문학통사』를 참고했다. 작가 약력과 신문학에서 카프에 이르는 조선문학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했다. 오무라는 이광수와 호적(胡適), 신경향파와 문학연구회(1921~32), 카프와 좌련(1930~36) 등 중국문학사와 견주는 방식으로 글을 이끌었다. 최서해의 소설이 감동적인 까닭은 “일본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아픔”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조선문학을 읽는 ‘나’가 중국문학 연구자이자 일본인이라

43) 大村益夫, 「脱出記(下)-訳者解説」, 『柿の会月報』 21, 1962.6, 7쪽.

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통사』의 인식을 어느 정도 상대화했다. 물론 뒤이어 쓴 『해방 후의 조선문학』처럼 『통사』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무라는 ‘일본인에게 조선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었다.

가지이는 자료와 연구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조선근대문학의 발걸음」(64.11)을 통해 조선근대문학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했다. 아마도 일본인 연구자로서는 첫 시도일 것이다. 가지이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를 서술 대상으로 한정했다. 글의 전반부는 이광수와 『창조』, 『폐허』, 『백조』를 중심으로 한 문예사조의 변화를 살폈고 후반부는 염군사의 결성에서 카프 해산까지를 다뤘다. 조선근대문학을 3·1운동 이후의 대중운동과 계급의식이 성장한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발걸음」은 『통사』의 문학사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낙동강」, 「원보」, 「과도기」를 높이 평가하고 나도향과 김소월을 동반자 작가로 분류한 것도 『통사』(하권)의 11장(‘1919~1930년의 문학’)과 상응한다.

그러나 이광수와 문예사조를 정리한 전반부는 『통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통사』는 이 시기를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대립하는 “자연주의 기타 부르주아 반동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반동적이며 기만적인 설교들”로 일축했지만,⁴⁴⁾ 「발걸음」은 이광수의 초기 문학이나 동인지의 문학사적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광수에서 『백조』에 이르는 일련의 문예운동을 “조선근대문학의 발전을 위해 거쳐야만 했던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⁴⁵⁾ 가지이는 이런 평가의 근거로 『조선평론』에 실린 강현철의 「조선근대문학의 사적 전망」(1952.2~9)을 제시했는데, 강현철의 글은 사실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8, 1949)를 출처 표시 없이 초역한 것이었다.⁴⁶⁾ 「사적 전망」은 여기에 임화의 「조선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1946.6)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백철의 중간과적 입장을 보강했다.⁴⁷⁾

44)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출판사, 1959, 23쪽.

45) 梶井陟, 「朝鮮近代文学の歩み」, 『朝鮮研究』 34, 1964.11, 28쪽.

46) 康玟哲, 「朝鮮近代文学の史的展望(上中下)」, 『朝鮮評論』 2·3·5, 朝鮮文化協會, 1952.2·5·9.

47) 강현철은 임화 이외에도 김태준의 「조선문학사」를 인용했다. 두 글 모두 『民主朝鮮』에 일본어로

강현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1950년 이전에는 재일본조선 문학자회(이후 재일조선문학회)에 참여하면서 『조선문예』, 『민주조선』 등에 시와 평론을 게재했다.⁴⁸⁾ 1950년대에는 『통일조선신문』(이전 『조선신문』)에 시와 소설을 실었고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⁴⁹⁾ 강현철은 「사적 전망」에서 ‘계급문학의 공식주의 편향과 국민문학의 국수주의 성향을 모두 비판하고 절충주의 문학론을 협동노선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백철의 주장에, ‘과시즘의 위협에 맞서 계급문학과 민족문학이 공동으로 조선어, 예술성, 합리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을 교훈 삼아 완전한 근대적 의미의 민족문학을 수립하자’는 임화의 주장을 더했다. 둘 사이의 친연성을 고려하면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전쟁 이전의 『사조사』와 전쟁 이후의 『통사』가 가지이의 글에서 공존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전쟁은 남북 문학사 양쪽에서 임화, 김남천, 이태준 등의 이름을 지워 버렸다. 『통사』는 그들의 ‘간첩 혐의’와 그들 문학의 ‘색정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 감상주의’ 등을 고발했다.⁵⁰⁾ 백철은 전쟁 후 낸 증보판 서문에 “금일과 같은 역사적인 정치적인 비극 때문에 우리 신문학사의 하반기를 서술하는 데서 여러 불편을 느낀 사실”을 토로하며 임화와 이태준에 관한 본문의 서술을 대부분 삭제했다.⁵¹⁾ 재일조선인 사회도 그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조선평론』에 「사적 전망」이 1952년 2월부터 9월까지 연재됐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조선평론』 8호에는 「백일하에 드러난 임화 일파의 죄악」이 게재됐다.⁵²⁾

번역된 바 있다. 「조선문학사」는 이은직의 번역으로 13회(1946.4~1947.12)에 걸쳐 연재됐고, 임화의 글은 「朝鮮民族文學建設の基本課題」(역자 미상)라는 제목으로 16호(1947.12)에 실렸다. 『民主朝鮮』에는 임화의 다른 글들과 이원조, 김남천, 김기림의 평론, 이태준의 「해방전후」 등이 게재됐다.

48) 『民主朝鮮』에서 활동하던 작가들 중심의 재일조선문학회(1948년 1월 결성)는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을 그대로 채용할 만큼 유대감이 깊었다.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1945~19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인문논총』 4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92~93쪽;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 岩波書店, 2014, 128~129쪽.

49) 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문제-《朝鮮文藝》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화회, 2006.4; 宋惠媛, 위의 책, 130쪽 및 137쪽.

50)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앞의 책, 150~151쪽.

51) 白鐵, 「增補版을 내면서」, 『新文學思潮史(增補)のために』, 民衆書館, 1955, 1~2쪽. 백철의 문학사 판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용호, 「백철 문학사의 판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12.

52) 李亨錫, 「白日のもとにさらされた林和一派の罪惡」, 『朝鮮評論』 8, 1953.10, 42~45쪽. 1953년 3월

전쟁이 한창인 시점에 『사적 전망』의 필자는 왜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를 소개한 것일까? 우연일 수도 있고 그만한 문학사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달리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풀리지 않는 물음들 너머로 떠오르는 것은, 『조선평론』과 『통사』를 나란히 펼쳐 놓고 곤혹스러워 하는 가지이의 얼굴이다. 가지이는 카프 해산 이후 10년을 ‘조선문학이 거의 부재하는 암흑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서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했다. 『사적 전망』이 강조한 계급문학과 민족문학의 협동에 대해서도, 염상섭과 이태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도 가지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1930년대 이후를 항일 빨치산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발전으로 특징짓는 『통사』의 입장도 서술에서 제외됐다. 가지이는 임화와 이태준을 전향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문학사를 서술하는 가지이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덧붙여 두자. 우선 시 작품을 예시하여 사조와 유파를 실감토록 했다. 카프 성립 이전의 문예지와 관련해 주요한, 김억, 박종화, 박영희의 시를 제시하는 한편, 김소월, 이상화, 임화, 박팔양의 시를 들어 저항하는 조선문학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논문 말미에 인용한 것은 다소 이외이다. 카프 도쿄지부 기관지 『예술운동』 창간호를 소개한 것도 가지이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적 전망』에 『예술운동』과 『무산자』의 언급이 없지는 않지만, 가지이는 그와 별개로 『예술운동』 창간호를 인용하면서 카프 도쿄지부가 1927년의 방향 전환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통사』가 카프 운동과 일본의 관계를 누락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예술운동』의 인용은 다분히 의도적인 배치였다. 가지이는 『예술운동』 창간호에 실린 박영희와 이북만의 평론 중 일절을 인용한 뒤, “이 시도 대단하다”며 임화의 「曇, 1927」을 소개했다.⁵³⁾

오무라도 「1920년대의 조선문학-프롤레타리아문학과 ‘민족주의문학」」에서 1920년대 중심으로 근대문학사를 훑었다. “1920년대 들어 조선문학이 이른바 ‘민족주의문학’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주체로 개

14일자 『민주조선』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53) 梶井陟, 앞의 논문, 32쪽.

화했다”⁵⁴⁾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카프와 최서해에 대해 쓴 일련의 글을 바탕으로 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카프의 타자로 ‘민족주의문학’까지 검토했다. 『통사』, 『현대작가론』(1961) 등의 북한쪽 연구 성과 이외에도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를 참고하는 한편, 이광수, 최남선, 양주동, 김남천의 해방 이전 자료도 직접 인용하는 등 『통사』에서 반동문학으로 부정된 작가들의 글을 비중 있게 거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우무리는 먼저 근대문학의 성립에 관한 남북의 견해 차이를 검토한 후, 프로문학 이전을 ‘근대문학의 맹아’로 일괄하여 개화기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를 살폈다. 이광수와 최남선에 대해서는 “3·1운동 이전에는 조선의 근대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 아래 두 사람의 출판 및 저술 활동을 소개하고, 1919년 이후의 동인지에 대해서는 “최남선이나 이광수류의 계몽주의적 문학이 아니라 작가 개인의 내면 세계를 노래하는 작품들”이 등장한다면서 동인지별 참여 작가의 이름을 열거했다.⁵⁵⁾ 평가보다는 사실 전달에 더 힘을 썼다는 인상을 받는다.

프로문학은 조직운동과 작가·작품 해설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서술했다. 카프 결성과 방향 전환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는데, 『조선연구』 35호에서 소개한 내용과도 겹친다.⁵⁶⁾ 주요 작가로는 최서해, 조명희, 한설야, 이기영을 소개했다. 특히 최서해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연구』와 『사회과학도구』에 쓴 글이 있는데, 그 일부를 다시 실었다.⁵⁷⁾ “이론이 아니라 생활로부터 사회주의에 접근해 가는” 최서해 소설의 ‘실감’을 강조하는 반면, 한

54) 大村益夫, 『1920年代の朝鮮文学-プロレタリア文学と‘民族主義文学’』, 『文学』 33(11), 岩波書店, 1965.11, 72쪽.

55) 大村益夫, 위의 논문, 73~75쪽.

56) 大村益夫, 『カプについて』, 『朝鮮研究』 35, 1964.12, 28~29쪽 및 48쪽. 「카프에 대하여」의 참고 문헌으로는 『조선문학동사(하)』(1959),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56), 백철의 『신문학사조사』(1953), 『문학』(1958), 『현대문학선집』(1957~59), 『예술운동』(1927.11), 『조선지광』(1927~29)이 제시됐다.

57) 大村益夫, 『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革新的インテリの側面-崔曙海の場合を中心として』, 『朝鮮研究月報』 25, 1964.1; 大村益夫, 『朝鮮の初期プロレタリア文学-崔曙海の諸作品』, 『社会科学討究』 31, 早稲田大学 社会科学研究所, 1966.1. 64년의 논문(미완)은 최서해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66년의 논문은 윤세중, 안환광 등을 참고하면서 최서해의 작품 전체를 살핀 글로, “구체적인 일정으로 일한 조약비준이 임박한” 1965년 9월에 탈고됐다.

설야의 「씨름」은 “의식적인 프롤레타리아의 최초 형상을 그리려고 했지만 너무 도식적이어서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⁵⁸⁾ 『통사』와는 결을 달리하는 입장이다.

민족주의문학은 최남선의 ‘국수주의적 국민문학론’과 양주동의 ‘절충적 민족주의문학’으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한국현대문학사』로부터 ‘최남선의 조선주의’, ‘국민문화파와 절충주의’ 등을 참조항으로 삼았지만,⁵⁹⁾ 논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조연현은 최남선의 국민문학론에 “외래적인 것을 배척하는 국수주의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국민문학론이 프로문학에 대한 방과제로서 주효했다고 평가했는데, 오무라는 그런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최남선을 “조선의 일본낭만파”로, 이광수를 “일본과의 투쟁 방기”로 몰아세웠다. 「발걸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봉합하는 쪽이었다면, 오무라는 사실만을 취한 뒤 그 사실을 자기 글 안에서 재문맥화했다. 조연현을 참조하면서도 그의 가치 평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카프 중심의 문학사 인식에 기초하여 『통사』의 결락을 보충하려고 한 점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공화국의 문학사에서는 ‘반동적 부르주아 작가’라고 하여 전혀 다루지 않는 김남천, 유진오, 이태준의 소설이나 평론 중에도 마음을 울리는 작품이 있다”며 김남천의 「유다적인 것과 문학」, 유진오의 「김강사와 T교수」를 짧게나마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또한 오무라는 『예술운동』 등을 인용하면서, 프로문학을 매개로 한 조선과 일본의 교류와 연대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일본과 조선 양국 프롤레타리아문학의 교류는 대단히 긴밀했을 것이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이런 교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양국 문화 교류의 역사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이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미니어처였다거나 이루어졌다거나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양국 인민의 역사적 연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⁶⁰⁾

58) 大村益夫, 「1920年代の朝鮮文学-プロレタリア文学と‘民族主義文学’」, 78~80쪽.

59)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全卷』, 人間社, 1961, 198~201쪽 및 448~459쪽.

이처럼 아시아 민중의 역사적 연대를 강조하는 관점은 조연을 포함한 당대의 사상적 흐름과 공명한다.⁶¹⁾ 특히 남북 문학사 양쪽에서 외면당한 프로문학과 일본(문학)의 관계를 연대의 관점에서 문제 삼았다는 점은,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관점의 예리함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흥미할 가치가 있는 대목이다.

3. 문학연구회의 탈태와 문학사 인식의 심화

1) ‘한설야 문제’와 위기의식

1966년 10월부터 조연 기관지 『조선연구』에 「낙동강」(55호), 「탈출기」(56호), 「과도기」(58,59호)가 잇달아 실렸다. 앞의 두 편은 오무라 자신이 이전에 번역했던 것을 고쳐 실은 것이고 「과도기」는 가지이가 새로 번역한 것이다. 조선문학을 소개해 달라는 조연 집행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눠 소설과 평론을 1966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연재하기로 했다.⁶²⁾ 가지이와 오무라는 일단 카프에서 시작하기로 하고 최서해, 조명희, 이기영, 한설야, 송영, 박세영을 소개할 작가로 뽑았다.⁶³⁾ 연재는 이듬해 6월까지 순조롭게 이어졌다. 가지이가 「과도기」에 이어 이기영의 「창작 방법의 문제에 대하여」(60,61호)와 한설야의 「프로예술의 선언」(62호)을 번역했다. 그런데 62호(67.6)가 발간되자 조선총련쪽에서 항의가 일었다. 한설야가

60) 大村益夫, 앞의 논문, 77쪽.

61) 예컨대 조연의 팜플렛 『日・朝・中三国人民連帶の歴史と理論』의 「第二講 日・朝・中三国人民連帶の關の歴史」는 아시아 민중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근대사를 재구성했다. 安藤彦太郎・寺尾五郎・宮田節子・吉岡吉典, 『日・朝・中三国人民連帶の歴史と理論』, 日本朝鮮研究所, 1964.6, 62~133쪽. 다음의 논문들도 참조하기 바란다. 차승기, 「가지무라 히데키의 「미발의 계기」, 강원봉·홍종욱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아연출판부, 2014; 홍종욱,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전-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한국사학회, 2017.3.

62) 編集部, 「洛東江-お知らせ」, 『朝鮮研究』 55, 日本朝鮮研究所, 1966.10, 12쪽.

63) 梶井陟, 「朝鮮文学翻訳の足跡 (11)」, 『季刊三千里』 32, 三千里社, 1982.11, 217~218쪽.

‘공화국에서 부정된 작가’라는 이유였다. 조선신보사와 조선대학교 구내 서점에서 광고 및 서적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했다.⁶⁴⁾ 이들이 유력한 협력처였던 만큼 조연으로서는 쉽게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연은 『조선연구』 64호(67.8)의 편집후기를 통해 상황 인식의 불철저함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었다고 예들려 사과했다.⁶⁵⁾ 결국 연재는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1961년까지만 해도 한설야는 이기영과 함께 북한문학을 대표했다. 후지시마 우다이가 한설야를 만나 기록한 『조선현대문학의 사상』(61.7)은 일본에 전해진 한설야의 마지막 발언이 됐다.⁶⁶⁾ 제일조선인 문학자인 박춘일은 196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작가동맹 회의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한설야의 이름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⁶⁷⁾ 조선작가동맹 위원장은 천세봉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설야를 아는 이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가지이가 조선인 지인들에게 사정을 물었지만 그들도 모르는 마찬가지였다. 한설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지이가 느낀 위기의식은 자신의 문학사 인식을 근거에서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신뢰가 의문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렸다.

나는 사실이 알고 싶었다. 그 비판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공화국이 그때까지 편찬했던 문학사의, 식민지 통치기 이후의 기술을 대폭 새로 써야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공화국의 문학사 개관을 크게 신뢰했던 나 자신의 문학사 이해도 근거에서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몇 명의 조선인 친구들에게 ‘한설야 비판의 이유’에 대해 물어보고 그 이후의 소식과 비판에 대해 발표된 내용이 있는지 따졌지만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다. 자신들도 모른다는 것이었다.⁶⁸⁾

64) 『拡大編集会議資料』(1967),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2』, 288쪽.

65) 『編集後記』, 『朝鮮研究』 64, 1967.8, 64쪽. 조연 운영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른 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간주하고 상호 대화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第11回運営委員会決定のお知らせ(7月26日)』,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2』, 302쪽.

66) 韓雪野・藤島宇内, 『朝鮮現代文学の思想』, 『文学』 29(7), 岩波書店, 1961.7.

67) 朴春日, 『現代朝鮮文学の現状と課題(2)-共和国北半部の文学』, 『文学』 32(9), 1964.9.

68) 梶井陟, 앞의 논문, 219쪽.

가지이와 오무라는 연재 기획 단계부터 한설야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고심 끝에 한설야를 소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⁶⁹⁾ 발밑의 크레바스를 확인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두드려 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다.⁷⁰⁾ 조연 사무국의 대응도 실망스러웠다. 연재가 중단된 후 두 사람의 『조선연구』 기고는 현저히 줄었다. 1968년 한 해 동안 오무라는 박세영의 시를 소개하는 짧은 글 하나를 신는 데 그쳤다.

1967~68년은 조연으로서도 시련의 시기였다. 한일조약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조연은 1966년 이후 침체에 접어들었다. 『조선문화사』(1966)의 번역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획기적인 성과임에 틀림없었지만 연구소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을 지웠다.⁷¹⁾ 조약 체결 후 반대 투쟁의 총괄 과정에서 테라오와 일본공산당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테라오가 공산당에서 제명되고 관련자들이 조연을 떠났다. 1968년 10월에는 “일본에서의 조선연구는 ‘특수부락’ 같은 것”이라는 하타다 다카시의 발언에 부락해방동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관련자의 사과와 반성, 자기비판이 거듭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⁷²⁾

이 시기의 문학연은 어땠을까? 조연의 정기총회 자료에 기록된 문학연의 활동은 당시의 조연 상황과 전혀 판판이었다. 1967년도에는 조연 내 연구회가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문학연만이 유일하게 모임을

69) 두 사람의 고심은 『과도기』의 해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지이는 2회에 걸쳐 한설야의 생애와 문학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는데, 그 분량은 「낙동강」이나 「탈출기」 해설의 4배에 달했다. 가지이는 해방 후 한설야가 북한에서 최고인민위원회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그 후 그가 여러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작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조선의 근대문학을 말하고자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여 줄역이라도 게재하기로 한 것이다.” 梶井陟, 『過渡期-解説(その2)』, 『朝鮮研究』 59, 1967.3, 38쪽.

70) 『과도기』가 게재된 1967년 3월에는 왜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이후 유일사상 체계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주체문예론이 전면에 등장하는 북한의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67년 5월 이후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은 북한 문학계의 변화에 분주하게 대처했다. 이 시기 문예동의 동향은 宋惠媛, 앞의 책, 199~202쪽.

71) 가지이, 오무라는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学)와 함께 번역 책임을 맡아 『조선문화사』 출간에 많은 공을 들였고 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컸다. 梶井陟, 『朝鮮文学研究会の歩み(7) 朝鮮文化史のこと』, 『朝鮮研究』 103, 1971.3; 장문석, 앞의 논문, 183~184쪽.

72) 조연의 67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和田春樹, 앞의 논문, 61~67쪽; 板垣竜太, 앞의 논문, 231~233쪽; 樋口雄一, 『解説 1』,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3』, 416~418쪽.

유지했다고 한다.⁷³⁾ 재일조선인 문학활동, 남북한의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 등 “발길 닿는 대로” 전개된 전년도 활동을 반성하며 1968년도에는 “초점을 현대문학에 맞추고 현대문학사 중심으로” 모임을 운영했다. 구체적으로는 5인의 고정 멤버가 “공통의 원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나오는 작품을 찾아 읽거나 “문예지에서 화제가 될 만한 작품”을 번역했다고 한다. 1968년도에는 총 8번의 월례 모임을 가졌고 1969년도에도 의욕적으로 모임을 진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⁷⁴⁾ 이 보고에는 한설야 문제로 촉발된 위기의식이거나 조연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 모임은 정말 문학연이었을까? 나중에서야 가지이는 이 무렵의 문학연이 조직적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털어냈다.⁷⁵⁾ 당시 오무라는 문학연이 조연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⁷⁶⁾ 윤학준⁷⁷⁾이나 다나카 아키라⁷⁸⁾가 남긴 글에서도, 그들의 ‘문학사 공부모임’과 조연의 연관은 찾을 수 없다. 『조선문학-소개와 연구』 「창간의 말」에서 “우리가 조선문학을 소개할 생각으로 문학사모임을 시작한 지 햇수로 3년이 된다. 월 1회의 문학사 공부와 병행해 매주 작품 강독회를 계속해 왔다. 괜찮다고 생

73) 『日本朝鮮研究所第7回定期總會資料』(1968.2),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2』, 88쪽.

74) 『日本朝鮮研究所第8回定期總會資料』(1969.2), 위의 책, 115~116쪽.

75) 梶井陟, 『朝鮮文学研究会の歩み(8) 日本人の朝鮮文学研究の貧しさ』, 『朝鮮研究』 106, 1971.7, 42쪽.

76)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2』에는 1968년 10월에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설문 자료가 실려 있다. 아마도 개인 또는 연구회의 활동 전망과 재정 문제를 조사한 것 같다. 연구회와 관련한 오무라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문학연 멤버와 협동하여 근현대 문학작품을 번역한다. 조연으로부터 문학연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 “문학 작품의 게재가 기관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연 재정의 협력보다 문학연의 기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アンケート回答』,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2』, 321쪽.

77) 윤학준(1933~2003)은 경북 출신으로 1953년 일본으로 건너가 호세이대학 일본문학과를 다녔다. 호세이대학 재학중에는 재일조선인 씨클린 조선문화연구회 기관지 『学之光』 편집에 관여했고,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의 지도 아래 조선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일본문학의 관계에 대한 졸업 논문을 썼다. 그 후 김달수가 주재한 잡지 『鷄林』과 조선총련 산하 단체 기관지인 『朝鮮商工新聞』에서 편집 업무를 봤다. 1964년 무렵에는 조직 내 갈등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총련에서 추방되고 문예동에서도 제명됐다. 高柳俊男, 『渡日初期の尹学準-密航・法政大学・帰国事業』, 『異文化』 5, 法政大学国際化学部, 2004; 尹学準, 『錦鯉たちとどじょう一匹-長璋吉の死を悼みつつ』, 『季刊 서울-東京』 13, 서울-東京編集委員会, 1989, 51~52쪽.

78) 다나카 아키라(1926~2010)는 아이치현 출신으로 어린 시절을 경성에서 보냈다. 용산공립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1952년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한 뒤 朝日新聞社에 입사했다. 1964년과 1966년에는 취재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이 무렵 윤학준의 소개로 가지이를 만나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田中明, 『ソウル実感録』, 北洋社, 1975, 203쪽 및 저자 약력.

각되는 작품을 골라 번갈아 번역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머리를 맞혔다”⁷⁹⁾고 밝힌 것처럼, 모임의 성원들은 1968년의 모임을 〈조선문학의 회〉 결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만 기억했다. 시기나 명칭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문학의 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1965~66년 무렵 와세다대학의 오무라 연구실에서 주 1회 단편소설을 읽는 독서모임을 시작했다. 소설 한 편을 몇 주에 걸쳐 꼼꼼히 읽으며 번역에 공을 들였다.
- ② 1968년부터 3년간 『한국현대문학사』를 읽는 월례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이 앞서 『문학연』으로 보고된 모임이다.) 때로는 특정 작가에 몰두했다. 가지이, 오무라, 이시카와, 이노구치(井口), 다나카, 윤학준이 참여했다.⁸⁰⁾
- ③ 『문학』 ‘조선문학 특집호’(70.11)에 가지이, 오무라, 다나카, 윤학준이 필자로 참여했다. 문학사모임의 이노구치 대신 조 쇼키치가 참가하여 1970년 가을 〈조선문학의 회〉를 결성하고 12월 『조선문학-소개와 연구』 창간호를 발행했다. (윤학준은 모임의 취지를 존중하여 조력자의 위치로 물러난다.)

윤학준은 오무라의 추천으로 1968년부터 와세다대학 어학교육연구소 조선어강좌를 담당했다.⁸¹⁾ 윤학준의 출장을 계기로 독서모임도 활기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윤학준은 오무라 이외에도 가지이, 다나카, 이시카와, 조, 오구라, 가지무라 마스미(梶村真

79) 『創刊のことば』,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 朝鮮文学の会, 1970.12, 1~2쪽.

80) 이노구치 아키라(井口昇)는 주오대학 중국어 교수로 1967년에는 조연의 조선어 초급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이시카와, 오구라와 함께 『最近の朝鮮の協同農場: 金日成テーゼ・分組都給制と農民生活』(日本朝鮮研究所, 1967)를 번역하기도 했다. 『日本朝鮮研究所第7回定期總會資料』,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2』, 88쪽; 佐藤勝巳, 『財政の現状と問題点』, 같은 책, 312쪽.

81) 당시의 와세다대학 조선어강좌에 대해서는 장문석, 앞의 논문, 175~177쪽.

澄), 마키세 아키코(牧瀬暁子) 등이 강좌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⁸²⁾ 가지무라와 마키세는 1973년에 동인이 됐다.⁸³⁾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초급 반 강좌가 언제부터인가 조선문학을 읽는 자리로 바뀐 것이다.

문학연에서는 『현대조선문학선집』을 주로 읽었지만 이 모임에서는 백수사에서 간행한 『한국단편문학전집』을 읽었다. 『통사』에 없는 작품들을 읽은 것이다.⁸⁴⁾ 『조선문학』에 게재된 소설 중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수록된 작품이 한 편도 없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현대문학』, 『월간 문학』 등 한국에서 간행되는 문예지를 읽었다는 것도 새로운 분위기를 반영한다. <조선문학의 회>에서 발간한 동인지와 선집에 실린 작품들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분석하겠지만, 독서모임에서도 『통사』의 영향력 상실은 역력했다.

문학사모임에서 읽은 텍스트는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였다. 『한국현대문학사』는 이광수와 최남선의 신문학운동과 1930년대의 순수문학을 문학사 서술의 중핵으로 내세웠고, 프로문학은 1920년대의 혼란한 문예사조 중 하나로 격하했다. 『통사』를 뒤집어 놓은 꼴이었다. 그러나 가지이나 오무라가 『통사』를 버리고 『한국현대문학사』로 돌아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미 2장에서 보았듯이 두 사람은 남북한의 문학연구를 견주는 방식으로 문학사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 둘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런 선택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문학을 연구한다’는 원칙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변화의 핵심은 모임을 구성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었다. 조연 시절의 문학연이나 <조선문학의 모임>이 단일한 문학사 인식을 추구했다면, 1968년 이후의 문학사모임과 <조선문학의 회>는 각자의 상이한 생각을 모임 구성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성원 사이에 ‘결코 사소하지

82) 尹學準, 「梶井陟さんのこと, <朝鮮文学の会>のこと」, 74쪽.

83) 마키세는 70년에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인이 되기 전에 조해일의 『뿔』을 『新日本文学』에 번역하기도 했다. 趙海一, 牧瀬暁子訳, 「角」, 『新日本文学』 28(4), 新日本文学会, 1973.4.

84) 오무라는 『현대조선문학선집』(1957~1961, 16권)과 『한국단편문학전집』(1971, 5권)에 수록된 해방 이전 작품을 대조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조표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남쪽에 있으면 북쪽에 없고, 북쪽에 있으면 남쪽에 없다. 같은 시기 한 나라의 문학사가 마치 두 나라의 문학사처럼 보인다. 남북 양쪽에서 공동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작가는 체만식, 강경애, 나도향, 최서해 네 사람 뿐이다.” 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 현황』(1990),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소명출판, 2016, 456쪽. 이 글의 원형은 「文学史をめぐる二、三の問題」(198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않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모임에는 그런 차이를 압도할 만한 동일성이 있기 마련이다. <조선문학의 회>로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조선문학'이 모임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힘이였다. 이때의 조선문학이란 『통사』의 조선문학도, 『한국현대문학사』의 그것도 아니었다. '하나의 조선문학' 또는 '총체로서의 조선문학'⁸⁵⁾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동인들 "사이의 심연을, 그 심연이 내려다보이는 크레바스를 건널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

조선문학이 다섯 명의 동인을 굳게 뭉치게 했다고 앞서 말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조선문학을 사랑하고 조선문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뭉쳤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동인들의 개인적 사상, 신조, 정치적 입장, 세계관, 문학관은 너무나 다르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로 밤을 지새기에는 우리 나이가 너무 많다. 조선문학에 대한 정열과 서로 간의 인간적 신뢰만이 우리를 사이의 심연을, 그 심연이 내려다보이는 크레바스를 건널 수 있는 힘이 된다.⁸⁶⁾

세대가 다르고 세계관과 문학적 입장이 다르지만 열정과 신뢰로 그 차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이다. 서로의 차이를 다룰 정도의 여유가 없다는 말이기도 했다. 이런 절박함이 모임을, 남북 어느 한쪽의 문학사 인식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융통성의 세계로 이끌었을 것이다. 조선문학이라는 실체 앞에서는 『조선문학통사』도 『한국현대문학사』도 부분적 진실에 지나지 않았다. 임화나 이태준처럼 남북 문학사 모두에서 말할된 존재를 응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필요했다. <조선문학의 회>는 "일본인에 의한, 적어도 일본인을 주체로 한 모임"이라며 스스로를 국민국가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남북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85)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문학을 연구한다는 것, 한국/북한의 분단을 극복하고 조선문학을 총체로 바라본다는 방향은 그때(<조선문학의 회>를 결성할 때-인용자) 이미 정해졌습니다." 大村益夫, 『朝鮮文學研究を志して五十年』, 66쪽.

86) 大村益夫, 『進軍のラッパは聞えない』, 『朝鮮文學-紹介と研究』 1, 1970.12, 62쪽.

어쨌거나 그들이 남북 모두에서 금지된 작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는 조선근대문학사의 크나큰 결락과 만나게 된다. (중략) 조선문학에 접속한다는 것은 현격하게 차이 나는 문학이념의 대립에 노출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처럼 삭제된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하면 양 진영의 어느 쪽으로부터, 혹은 양쪽 모두로부터 반조선적 태도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 (중략) 우리가 조선문학에 뜻을 둔 것이, 조선문화의 결실을 조선인이 주는 대로 적당히 받아먹으려는 자세, 즉 주체성의 결여에 불과한 대국주의적 발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웃나라 조선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무지한 것이 싫어서였다. '삭제'된 부분을 다루는 것이 공명을 부를지 비난을 부를지는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⁸⁷⁾

인용문은 『문학』(70.11)에 실린 다나카의 「조선문학에 일본인이 관여하는 방식」 마지막 부분에서 따온 것이다. 양쪽으로부터 외면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남도 북도 아닌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자세가 자못 비장하다.

2) 주체성의 두 가지 형식

『문학』 특집에는 김석범, 이회성, 오에 겐자부로, 권두 좌담회를 시작으로 김달수, 허남기, 김시중, 안우식, 정귀문 등의 재일조선인 문학자가 대거 참여했다. 여기에 중국문학자인 다케우치 미노루, 다케우치 요시미 그리고 다나카, 오무라, 가지이, 윤학준이 글을 보탤다. 오무라가 해방 전의 근대문학에 대해 쓰고, 가지이와 윤학준이 해방 이후의 북한문학과 남한문학에 대해 썼다.

다나카의 글은 오무라, 가지이, 윤학준의 글 앞에 놓여 일종의 총론처럼 읽힌다. 다나카는 1940년의 '조선문학 붐'이 대륙침략의 이해를 반영한 정세론 또는 조선도구론의 산물이라 분석하고 전후 혁신세력의 조선문학 소개도

87) 山田明(田中明), 「朝鮮文学への日本人のかかわり方」, 『文学』 38(11), 1970.11, 99쪽.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주관적인 정세론이나 운동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만 조선문학을 받아들인다면 “연대나 협력의 운동과 이론이 좌절하는 순간 무관심이라는 황량한 동토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였다.⁸⁸⁾ “조선문학을 알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그 자신은 조선어에 접근하려고도 하지 않는”⁸⁹⁾ 게으름과 오만을 신랄하게 꼬집은 것이다.

다나카가 보기에, 선의일 수는 있어도 “번역한 것을 갖다 바치라”는 게으른 주인 행세는 전후에도 여전했다. 그는 이것을 “주체성의 결여”라고 못박았다. “이류대국주의적 희비극” 또는 “대국주의적 발상”이라고도 빗댔다. 지금이라면 패전 후에도 지속되는 식민주의라고 했을 것이다. 다나카가 말한 ‘주체성’은 그 식민주의 관성과 대결한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일상과 그 일상의 내면을 필사적으로 알아내려는 “주체적 행위”가 곧 그의 조선문학이었다. 실제로 다나카는 『세대』(70.8)에 실린 글을 들어, 식민지 시절 유년기를 보낸 ‘황국신민’ 세대가 1965년 이후의 변화 속에서 겪는 내면의 곤혹을 들춰본다. 신식민주의적 재침략이라는 이론적 시각만으로는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의식의 속살’이었다. 왜 조선문학인가에 대한 다나카 나름의 대답이었다.

윤학준은 1964~65년에 발표한 일련의 글들을 통해 저항문학이라 부를 만한 60년대 한국의 시, 소설, 평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의 사회주의문학에 가려 논의되던 한국문학을 의식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문학』에 실린 『현실 참여에 대하여-오늘날의 남조선문학』은, 정작 다뤄야 할 1965년 이후의 동향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1964~65년에 쓴 논의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⁹⁰⁾ 윤학준은 독서모임과 문학사모임에 참여하면서 “가지이 씨나 다나카 씨 등과 함께 다시 문학의 세계에 빠지는 기쁨을 맛보았다. 날 버리고 떠난 연인을 다시 만난 것마냥 충실한 나날들”⁹¹⁾이었다고 감격했지만, 공백의 흔적이 너무 컸다. 가지이의 『사회주의 건설의

88) 山田明, 위의 논문, 93쪽.

89) 梶井陟, 『日本の中の朝鮮文学-その一』,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2, 1974.8, 63쪽.

90) 尹学準, 『现实参与をめぐる-今日の南朝鮮文学』, 『文学』 38(11), 1970.11, 99쪽.

91) 尹学準, 『錦鯉たちとどじょう一匹-長璋吉の死を悼みつつ』, 52쪽.

인간상-해방 후의 북조선문학』은 당의 정치 노선과 문학 방침에 준거하여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해설했다.⁹²⁾ 다나가와 윤학준이 문학가동맹을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지이는 임화, 이태준, 한설야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의 견해를 거의 내비치지 않았다.

오무라의 『빼앗긴 들의 빼앗기지 않은 마음-해방 전의 조선근대문학』은 저항을 주제로 내세웠다.⁹³⁾ 1965년의 『문학』 논문과 비교하면 문학사 인식과 서술 방식 그리고 자료를 다루는 방식이나 참고문헌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생겼다. 전작이 카프 중심의 시대 구분과 특징에 천착했다면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으로 저항을 들고 개별 작품에서 그 정신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따졌다. 카프와 관련해서는 이념과 문학적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한계로 지적하고 최서해의 작품을 해설하는 정도에 그쳤다. 조연현을 인용하고 『현대조선문학선집』에 수록되지 않은 현진건의 『빈 처』, 김동인의 『붉은 산』을 내세우는 등 문학사 및 독서모임의 영향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카프를 저항의 중심으로 보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저항의 성격, 양태, 범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글의 서두에 인용한 송민호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연현이나 송민호가 과신한 문학의 순수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의 본령은 카프 해산 이후와 태평양전쟁기를 다룬 후반부에 있다. 카프 해산 이후 작품으로 유진오의 『김강사와 T교수』, 임옥인의 『후처기』, 한설야의 『모색』, 이효석의 일본어소설 『희미한 빛』을 들어 시류에 불응하는 지식인들의 고뇌를 긍정하는 한편, 전쟁에 협력한 이광수와 이석훈의 친일 행위를 재론했다. 변절 대신 다소 중립적인 어감의 ‘방향전환[転折]’을 채택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민족 반역자, 일제의 앞잡이라 불리는 이들조차 민족의 혼을 잃지는 않았다”⁹⁴⁾는 해석은 초기의 입장과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일본어소설이나 일본어로 발행된 잡지와 단행본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

92) 梶井陟, 『社会主義建設の人間像-解放後の北朝鮮文学』, 『文学』 38(11), 1970.11.

93) 大村益夫, 『奪われし野の奪われぬ心-解放前の朝鮮近代文学』, 『文学』 38(11), 1970.11.

94) 大村益夫, 위의 논문, 113쪽.

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다.

친일문학의 재해석은 이 시기의 오무라를 특징짓는 새로운 경향으로, 그 시작은 『사회과학도구』에 발표된 「제2차 세계대전 하 조선의 문화 상황」(70.3)이었다. 송민호의 논문을 번역한 「일제말 암흑기문학의 저항」(70.12)의 역자 후기에 박영희, 최재서, 이석훈에 대한 저자의 혹독한 평가를 두고 “우리 일본인으로서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⁹⁵⁾는 짤막한 단서를 남겼는데, 「문화 상황」은 바로 그 다른 생각을 풀어놓은 것이었다.

「문화 상황」은 논문 말미에 이석훈과 김용제도 다루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광수 논의에 할애했다. 오무라는 『嘉実』(1940), 『同胞に寄す』(1941), 『内鮮一体随想録』(1941) 등의 일본어 단행본을 통해 이광수의 논리를 차분하게 검토했다. 그는 「민족개조론」 등의 1920년대 시론에서 이광수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추출했으며, 현실에서 좌절한 이광수가 결국 “무차별세계를 관념의 피안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꼬집었다.⁹⁶⁾ 법화경에 빠져 있던 이광수는 1940년을 전후로 “민족 멸망의 공포” 때문에 “발광하듯” 내선일체와 친일협력으로 내달렸다. 오무라는 이광수의 내선일체론에 대해 “자기 존재를 말살하고서 어찌 타자와의 평등이 가능한가. 그의 논리는 완전히 뒤집혀 있다”며 정곡을 찔렀다. 이광수가 “일제가 꺼내 든 ‘일시동인, 내선일체’를 역이용[逆手]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지적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⁹⁷⁾ 이는 임종국의 논의와 공명하는 부분이기도 한데,⁹⁸⁾ 오무라는 더 나아가 이광수의 내선일체론이 총독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무라는 ‘차이의 완전한 소멸’을 주장하는 『내선일체수상록』 안에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타자성의 증거들(불신, 애정의 갈급, 이기, 존재의 항변 등)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가 보기에 “이광수 역시 결국 조선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95) 大村益夫, 「日帝下暗黒期文学の抵抗-訳者あとがき」,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 1970.12, 50쪽.

96)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社会科学討究』 43, 早稲田大学 社会科学研究所, 1970.3, 414쪽.

97) 大村益夫, 위의 논문, 403쪽.

98) 오무라 자신이 밝힌 것처럼, 「문화 상황」은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 촉발된 논문이다. 임종국이 분석한 이광수의 내선일체론에 대해서는 林鍾国, 大村益夫訳, 『親日文学論』, 高麗書林, 1976, 276~301쪽. 단, 『同胞に寄す』, 『内鮮一体随想録』는 임종국의 책에서 검토되지 않은 자료이다.

없었다.”⁹⁹⁾ 오무라의 날카로운 통찰이 이광수 연구 및 일제말 문학연구에 미친 영향은 자리를 달리하여 살펴볼 문제이지만, 『문화 상황』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김윤식이 오무라의 논의를 상당히 무겁게 검토한 바 있다는 점만큼은 덧붙여 두기로 하자.¹⁰⁰⁾

가지무리는 자기비판의 관점에서 『내선일체수상록』을 다뤘다. 그는 『내선일체수상록』에서 “내선일체의 열쇠는 조선인 자신이 쥐고 있다”거나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노력에 있다”¹⁰¹⁾는 구절이 포함된 문장을 인용하면서,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 황민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간파했다. 조선인의 처지에서 보면 “일제가 만들어 놓은 동화(同化)=동원(動員)의 덫에 제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었다. 가지무리는 이광수와 『내선일체수상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시류에 민감한 자가 깊이 휘말리는 일도 있었다. 예를 들어 3·1운동 무렵 저명한 학생활동가였고 20년대에는 『민족개조론』을 내걸고 민족운동의 이론전선에 파문을 던졌던 이광수도, 정신적 굴복을 뺏속에 새긴 채 포획당한 이들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가야마 미쓰로(香山光朗)라는 이름으로 『내선일체수상록』이라는 팜플렛을 남겼는데, 살아남으려는 인간힘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일본인으로서의 끝까지 읽는 게 대단히 힘든 역사적 문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국주의의 잔혹함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⁰²⁾

가지무리는 무자비한 폭력 아래에서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이광수를 본다. 이광수에 대한 비난이나 동정에 앞서, 인간을 파괴하는 잔혹한 폭력에

99)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418쪽.

100) 김윤식은 『식민지 문학의 상흔과 그 극복』에서 오무라의 논문을 이광수와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 논의의 단서로 삼는 한편, ‘황국신민’ 세대의 의식 분열에 대한 다나카 아키라의 분석에 쓰러린 공감을 표했다. 김윤식, 『식민지 문학의 상흔과 그 극복』,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114~145쪽.

101) 香山光朗, 『内鮮一体随想録』, 中央協和会, 1941, 1~3쪽. (樋口雄一編, 『協和会関係資料集Ⅱ』, 緑蔭書房, 1991)

102) 梶村秀樹, 『日本帝國主義の問題』(1977),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明石書店, 1993, 313쪽.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끔찍한 풍경과 마주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안쪽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¹⁰³⁾이기도 했다. 오무라도 일찌감치 비슷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조선청년동맹 주최의 청년학교] 개강식에서의 긴박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중략) 모두 조선인이었다. 이는 얼굴이 있을 리 없다. (중략) 사람들이 만든 벽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연설이 이어졌다. 일본을 향한 격한 말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내게 달려들었다. 진짜 조선인의 목소리였다. 염불 외듯 입속에서 ‘일본인, 일본인’을 되뇌었다.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묵직하게 내리눌렀다. 3·1운동을 생각하고 창씨개명을 생각하고 관동대지진을 생각했다. 조선은 나를 내셔널리스트가 되게 했다.”¹⁰⁴⁾

『문화 상황』 등에서도 치열한 자기비판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지금 나는, ‘조선근대문학이란 무엇인가’라거나 ‘이광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일본 제국주의가 이런 비참한 정황을 조선인에게 강요한 식민지 지배의 잔인함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¹⁰⁵⁾이다. 그에게 조선문학은 “식민지 지배가 인간의 혼을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밝히고, 것처럼 궁지에 몰아넣은 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¹⁰⁶⁾과 다르지 않았다. 오무라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 즉 일종의 당사자(가해자)라는 입장에서 조선근대문학의 의미를 따졌다. 조선문학을 시작한 이래 변하지 않은 그의 일관된 태도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강요한 자의 치욕이 강요당한 자의 치욕보다 수백 배일지도 모른다는 상념” 속에서, “다른 외국문학을 대할 때와는 다른, 일종의 긴장감”¹⁰⁷⁾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03) 梶村秀樹, 위의 논문, 329쪽. “내제적 발전론에 기초한 새로운 역사상의 추구가, 자생적 발전을 왜곡·억압한 원흉으로 일제의 가해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는 요시노 마코토의 견해와, 가지무라의 『内鮮一体随想録』 독해를 “이광수에 대한 내제적 이해의 시도”로 해석한 미쓰이의 견해도 참조하기 바란다. 吉野誠, 『朝鮮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發展論』, 『東海大学紀要 文学部』 47, 東海大学, 1987, 36쪽; 미쓰이 다카시, 『근대 조선사학사 인식에서 본 가지무라 히데키』, 강원봉·홍종욱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제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아연출판부, 2014, 62쪽.

104) 大村益夫, 『わたしと朝鮮』, 37~38쪽.

105)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401~402쪽.

106) 大村益夫, 『奪われし野の奪われぬ心-解放前の朝鮮近代文学』, 113쪽.

107) 大村益夫, 『訳者解説』, 『親日文学論』, xiv쪽.

4. 『조선문학-소개와 연구』의 성과와 한계

『문학』 기고를 계기로 가지이, 오무라 등은 1970년 가을 <조선문학의 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12월 『조선문학-소개와 연구』(이하 『조선문학』)를 창간했다. 창간호 발행 당시 성원은 가지이, 오무라, 다나카, 이시카와, 조 5인이고 창간호가 나온 뒤 오구라가 동참했다.¹⁰⁸⁾ 가지이, 오무라, 다나카, 이시카와는 독서모임과 문학사모임을 3~5년간 함께 했다. 이시카와, 오구라, 조는 조연에서 조선어를 배운 인연이 있다.¹⁰⁹⁾

<조선문학의 모임>과 <조선문학의 회>는 둘 다 ‘朝鮮文学の会’로 이름이 같지만, 구성원의 자질이나 모임의 목표, 활동 방식 등에서 그 성격이 확연히 달랐다. <조선문학의 모임>은 조연을 중심으로 만든 독자 모임에 가까웠고 역사 인식이나 이념의 동질성을 추구했다. 조선문학연구에 뜻을 둔 이들은 가지이나 오무라 정도였다. 대부분의 회원이 조선어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조선문학이 활동의 최대치였다.

반면 <조선문학의 회>는 소수의 동인 집단이면서도 이념적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조선문학의 회>는 스스로를 “직업, 신조, 문학관 모두 천차만별”인 “이질적인 인간들”의 집합체로 인식했다.¹¹⁰⁾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문학을 소개하고 연구한다는 최소한의 요강만을 내세웠다. “현대조선문학을 연구하는 일본인만으로 5명을 모은 조직은 처음”¹¹¹⁾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모임의 지표는 오직 하나, ‘스스로 번역하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108) 다나카는 5호를 발간할 즈음 한국어로 유학을 가면서 모임을 탈퇴했다. 한편 다카키 히데아키(高木英明)가 4호부터, 도모나가 노리(朝長ノリ)가 8호부터, 마키세 아키코, 가지무라 마스미가 9호 발간 이후에 동인으로 참가했다. 다카키와 도모나가의 활동 기간은 길지 않았다.

109) 이시카와 세쓰코(石川節子, 石川節)의 본업은 사미센 교습으로, 조선어를 조연 강습회에서 배운 뒤 67, 68년에는 조연 연구생으로 활동했다. 『조선문학』 창간호 『동인의 말』에는 “몇 년 전 조선인 이 쓴 것을 직접 읽고 싶다는 생각에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반 년 정도 배우고 나서는 무모하게도 《한국단편문학전집》을 읽고 있던 와세다 어연(語研) 연구실에 뛰어들었다”고 썼다. 오구라 히사시는 『東京經濟』의 기자였다.

110) 田中明, 『異質な人間の共通意思』,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 朝鮮文学の会, 1970.12, 64쪽.

111) 梶井陟, 『もう一人ではない』, 위의 책, 63쪽.

우리 모임에는 회칙이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모임이 (1) 일본인의, 적어도 일본인을 주체로 한 모임이라는 것 (2) 백두산 이남, 현해탄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민족이 만들어낸 문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확인하자. 우리들 마음에 38도선은 없다.¹¹²⁾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이라는 모임의 구속성은 남북 문학사에 속박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 문학을 번역하고 연구한다는 자각의 구체적인 함의는 무엇이었을까? 동인 저마다의 대답이 있었을 것이다. 다니카는 대국주의(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주체의 노력을 역설했고, 오무라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는 ‘당사자로서의 일본(인)’을 강조했다. 물론 <조선문학의 회>는 어떤 형태로도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스스로를 일종의 협의체로 생각했고 세포 분열을 통해 발전적으로 해체되기를 원했다.

동인지 『조선문학』도 사실 “개인 잡지의 묶음”(오무라)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조선문학』의 일관된 성격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조선문학』에 게재된 글을 번역과 연구로 나눠 보면, 12호까지 발간된 『조선문학』 전체에서 시, 소설, 평론의 번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중에서도 소설 번역에 공을 많이 들였다. 남북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총 29편의 번역 소설 중 북한 작품은 4편에 불과했다. 어느 한쪽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건상 접근이 쉽지 않았다. 번역한 북한소설의 작가 이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번역소설만 놓고 보면, 『조선문학』은 196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에 쏠려 있다. 1960년대 작품이 4편이고 1970년대 작품은 무려 10편이나 됐다.

번역소설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번역자 개인의 취향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공통의 맥락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정 주제 없이 발간한 1호부터 6호(72.3)까지

112) 大村益夫, 『進軍のラッパは聞えない』, 위의 책, 62쪽.

의 번역소설은 모두 14편으로 그 중 식민지기 소설이 3편, 해방기 소설 1편,¹¹³⁾ 1960년대 북한소설이 2편이다.¹¹⁴⁾ 나머지 8편이 1960~70년대의 한국소설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총독의 소리」(1967)를 필두로 하근찬의 「죽제비」(1970), 선우휘의 「묵시」(1971), 박시정의 「날개소리」(1970), 윤정규의 「한수전(恨水傳)」(1971), 오영수의 「새」(1971), 서기원의 「마로열전 (3)」(1971), 이청준의 「문단속 좀 해 주세요」(1971)가 실렸다. 계통성이나 대표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식민지·친일·한일조약 등 ‘일본이라는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았다.

식민지기 소설로는 어떤 것들이 소개되었을까? 1945년 이전 소설은 모두 7편이 실렸고 창간호의 「빈처」(1921)를 제외한 6편이 1930년대 작품이다. 「빈처」를 번역한 이시카와는 「작가소개」에서 현진건을 “조선근대문학의 리얼리즘을 개척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소개했다. “남쪽 문학사에서는 어느 저서나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북쪽의 『조선문학통사』 하권(1959)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었지만 『어문연구』(1966년 제2호)에 실린 「비판적 리얼리스트 현진건」에서는 높이 재평가” 된다고 덧붙였다.¹¹⁵⁾ 북쪽의 달라진 평가를 바탕으로 현진건을 남북 문학사의 접점으로 삼은 것이다. 번역 저본은 백수사관 『한국단편문학전집』 제1권(1965년 증보4판)에 수록된 것을 사용했다. 2호에는 오무라가 옮긴 「무녀도」(1936)가 실렸다. 역자 해설에는 조연현, 김우종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김동리의 순수문학론과 토착성이 언급됐다. 오무라는, 순수문학론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입장은 드러내지 않은 채, 「무녀도」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짚었다.¹¹⁶⁾

6호에 「동백꽃」, 1930년대 특집호인 7호에 「지하촌」, 「가마귀」, 「수탉」, 「봉별기」가 실렸다. 6, 7호에 실린 다섯 편 중 「지하촌」 이외의 작품이 모두

113) 해방기 소설로는 안동수의 「아름다운 아침」(1946)이 4호(71.9)에 실렸다.

114) 북한소설로는 허준식의 「창조」(1965)와 류도희의 「행복한 날에」(1962)가 3호(71.6)와 5호(71.12)에 실렸다. 「창조」는 사회주의 건설에 분투하는 화학기사를 다룬 이야기이다. 「행복한 날에」는 1930년대 항일유격대에 참여한 여성들의 헌신과 혁명 정신의 계승을 그린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회주의 건설기의 자신감이 배어 있다.

115) 石川節, 「貧妻-作者紹介」,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 1970.12, 19쪽.

116) 大村益夫, 「巫女図-作者紹介」, 『朝鮮文学-紹介と研究』 2, 1971.3, 20쪽.

구인회 관련 소설이고, 『수탑』(1933)을 제외한 네 편이 1936년에 발표된 것이다. 7호에는 정지용과 김기림의 시도 실렸다. 가지이의 『1930년대의 조선 문학 상황 개관』은 7호의 ‘1930년대 특집’을 조망하는 위치에 놓인 글인데, 논의 대부분이 ‘1930년대=순수문학기’(조연현)의 관점을 비판하는 데 맞춰졌다.¹¹⁷⁾ ‘순수문학기’라는 시대구분이 진실의 부서진 조각, 즉 계급문학을 배제한 결과라는 것이 가지이의 주된 논지였다. 김우중은 『한국현대소설사』(1968)에서 1930년대의 순수문학이 “문학의 독자성”을 확립했지만 “도피적 문학, 역사 부재의 문학”에 머물렀다며 공과를 따졌는데,¹¹⁸⁾ 가지이는 후자만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었다. 결과적으로 “다섯 작가의 작품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겠다”¹¹⁹⁾는 취지가 무색하게, 게재된 작품과 관련해서는 구인회의 멤버 이름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6, 7호를 경계로 『조선문학』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 우선 발행인이 오무라에서 조 쇼키치로 바뀌었다. 오무라가 1972년 봄부터 연구년으로 한국에 머물게 된 까닭이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6호까지 특정한 주제 없이 발행하던 것에서, 7호부터 하나의 주제를 내걸고 그에 맞춰 시, 소설, 평론을 번역하고 해설을 쓰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첫 특집은 1930년대, 그것도 구인회 위주로 작품을 선정했다. 조는 7호에서 『가마귀』와 『날개』를 옮겼다. 이태준은 “프로문학의 전성시대가 지난 뒤인 1930년대 ‘순수문학’의 대표 작가. 그의 작품은 이름답지만, 역사적 상황을 사상한 채 패배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감상적 동정을 표현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평가받는다”¹²⁰⁾고 소개했고, 이상의 『날개』에 대해서는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에서 “심리주의적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자의식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라는 구절을 끌어왔다.¹²¹⁾ 작가 소개에 인용된 촌평은 조의 생각이 아니다. 조의 특유한 감각은

117) 梶井陟, 『1930年代の朝鮮文學狀況概観』, 『朝鮮文學-紹介と研究』 7, 1972.7, 52~56쪽.

118) 金宇鍾, 長璋吉訳, 『韓國現代小説史』, 龍溪書舍, 1975, 335~336쪽.

119) 梶井陟, 앞의 논문, 52쪽.

120) 長璋吉, 『鵬-作者紹介』, 『朝鮮文學-紹介と研究』 7, 1972.7, 3쪽. 인용된 평가는 김우중의 것이다. 金宇鍾, 앞의 책, 281쪽.

121) 長璋吉, 『逢別記-作者紹介』, 『朝鮮文學-紹介と研究』 7, 47쪽; 白鐵, 앞의 책, 311쪽.

그가 선택한 작품들의 경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이지만, 가지이나 오무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¹²²⁾

제7호에서는 1930년대 문학 특집을 꾸며 봤습니다. 가지이 노보루의 해설과 함께 게재된 작품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부터는 1950년대 문학(8호), 1960년대 문학(9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학(10호)을 특집으로 꾸밀 예정입니다.¹²³⁾

인용문 속 예정은 연 4회 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실제로는 7호부터 조금씩 늦어져 9, 10호는 73년 3월과 9월에 발행됐다. 3개월 간격으로 발행되던 것이 어느새 반년 간격으로 늘어난 것이다. 8, 9호를 1950년대, 1960년대의 남한문학으로 꾸미고 10호를 북한문학 특집으로 잡아 균형을 맞췄다. 조가 8호의 해설을, 가지이가 10호의 해설을 썼다. 9호 해설은 임헌영의 평론¹²⁴⁾으로 대신했다.

조 쇼키치는 1941년생으로 다나가, 가지이와는 14, 15살의 차이가 있었다. 그는 도쿄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에 적을 두고 있던 1963년 5월부터 조연에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다.¹²⁵⁾ 간노가 강좌의 책임을 맡고 가지이와 오무라가 강사로 참여하던 때였다. 1963년에는 <조선문학의 모임>에도 잠시 참여했다. 1967년에는 조연 조선어강좌에서 상급 강사를 맡았다.¹²⁶⁾ 조는 1965년 3월 도쿄외국어대학을 졸업했는데, 1968년 11월 한국으로 건너가 이듬해 3월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122) 오무라는 조 쇼키치,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壽勝)와 함께 『朝鮮短編小説選(上下)』(1984), 『韓国短編小説選』(1988)을 편역했는데, 번역 작품 선정 과정에서 조와는 한 번도 경합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만큼 조 쇼키치 씨는 나와 관심이 달랐습니다. 조 씨는 내게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젊고 독특한 재능의 소유자를 오랫동안 줄곧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大村益夫, 『弔文』, 長璋吉, 『朝鮮・言葉・人間』, 河出書房新社, 1989, 424쪽.

123) 『お知らせとお願い』, 『朝鮮文学-紹介と研究』 7, 65쪽.

124) 任軒永, 高木高明訳, 『挑戦の文学』, 『朝鮮文学-紹介と研究』 9, 1973.3.

125) 長璋吉, 『雉感』, 『글방』 1, 現代語学塾, 1975.8, 6쪽. 조 쇼키치의 생애와 저작은 「長璋吉年譜」, 『朝鮮・言葉・人間』, 410~418쪽.

126) 『日本朝鮮研究所第7回定期総会資料』, 92쪽.

조는 한국어 연구에 뜻을 두고 있었다. 조사의 용례를 수집할 요량으로 소설을 읽다가 한국문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고 한다.¹²⁷⁾ 1년 뒤인 1970년 봄 대학원을 그만두고 귀국했다.

다나카와 윤학준이 조를 처음 만난 것은 1970년 가을이었다. 『조선문학』 첫 편집회의 자리였는데, 윤학준은 그때의 조가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에서 빛나는 눈 어딘가에 빼딱한 불량이 있었다”고 기억했다.¹²⁸⁾ 조는 창간호에 유학기를 연재하기로 했다. 독특한 시선과 신선한 문체가 화제를 불렀다.¹²⁹⁾ 다나카는 그의 문장이 이념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언어의 주파수만을 따라가며 맨눈으로 한국을 응시했다”면서, 조가 “달으면 베일 것 같은 날카로운 언어감각”의 소유자였다고 그의 이른 죽음을 애도했다.¹³⁰⁾

조의 첫 번역은 『아사히 아시아리뷰』(71.6)에 옮긴 박순녀의 『어떤 파리』이다.¹³¹⁾ 해방 이후 한국문학의 흐름을 요약한 역사 해설에서는 1950년대 문학의 윤리적 항변과 1960년대 문학의 개인주의를 대비시켰다.¹³²⁾ 역사 해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조의 첫 발언이었다. 『조선문학』 4호(71.9)에는 박시정의 『날개소리』를 번역하면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과 평론가들이 가진 공통의 지향성”을 작품 선택의 이유로 들었다. (『어떤 파리』나 『날개소리』 모두 1970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8호 특집 해설에서는 1950년대 문학의 특징을 폐허로부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정리했다. 그는 감각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작중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분석

127) 長璋吉, 『平面性の文学の課題』(1976), 『朝鮮・言葉・人間』, 157쪽.

128) 尹学準, 『錦鯉たちとどじょう一匹-長璋吉の死を悼みつつ』, 53쪽.

129) 1968년 11월부터 1970년 3월까지의 유학 생활을 다룬 조의 『ソウル遊学記-私の朝鮮語小辞典』(1970.8~74.1)은 경쾌한 필치로 하숙집, 다방, 영화관, 양복점, 길거리 등에서 만난 사람들의 일화를 담았다. 조의 유학기는 ‘독재 치하’라는 엄숙한 시선이 지배하던 당시의 한국 인식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동인지의 연재가 끝난 후에는 단행본(1973), 증보판(1975), 문고판(1985), 문고판 신판(2002) 등 30년간 6번이나 판을 거듭했다. 木下降男, 『長璋吉-普段着の朝鮮語をめざして』, 笹野哲編, 『36人の日本人 韓国・朝鮮へのまなざし』, 明石書店, 2005, 223~224쪽.

130) 田中明, 『長璋吉君を失って』, 『朝鮮・言葉・人間』, 425쪽.

131) 朴順女, 長璋吉訳, 『あるパリ』, 『朝日アジアレビュー』 2(2), 朝日新聞社, 1971.6.

132) 長璋吉, 『解放後の模索から質的向上期へ』, 『朝日アジアレビュー』 2(2), 79~81쪽.

에 집중했다.

김성한은 (중략) 정상적인 행동 체계를 고의로 무시하는 ‘엉뚱한 사람’을 만들어 냈다. (중략) 정상이지만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중략) ‘엉뚱한 사람’의 존재를 해명해 준 한국의 평론가는, 내가 아는 한 아직 없다. 『낙서죽』(손창섭, 59년)의 주인공이 지성 결핍으로 비난 받고 『무정』의 주인공은 ‘주책바가지’라는 소리를 듣는다. ‘주책바가지’란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하려고 자취를 감춘 은사의 딸을 찾으러 가서는, 그녀가 갔을 만한 곳을 안내해 주는 어린 기생의 저고리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은 것을 보고 홀연 마음이 바뀌어 발길을 돌리는, 심지어 그걸 괴로워하지도 않는 남자를 가리킨다. (중략) 김성한은 전쟁 직후의 기대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질서예의 의욕을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 ‘엉뚱한 사람’을 사용했다.¹³³⁾

조는 이념이나 역사보다는 문학적인 것에 더 많은 흥미를 느꼈다. 동년배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컸다. 그는 김승옥, 이청준, 최인훈과 더불어 김우중, 김주현, 김현, 김윤식 등의 젊은 비평가들에 귀를 기울였다. 1970년대 특집호인 『조선문학』 11호에는 김현이 쓴 정현종론, 『바람의 현상학』을 번역하기도 했다.

10호(73.9)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학’ 특집으로 가지이의 역할이 컸다. 소설은 박태연의 『다시 만날 때까지』, 김현구의 『잠수 견습공』을 가지이와 오구라의 번역으로 실었다. 『조선문학』(56.3)과 『1962년 문학작품년감』에서 뽑은 것이다. 가지이가 조기천, 김시권, 김운하의 시를 번역하고 해방 후의 북한문학에 관한 해설도 썼다.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문학을 당 문예정책 중심으로 정리한 점은 『사회주의 건설의 인간상』(70.11)과 대동소이하지만, 1967년 이후의 변화(주체사상의 대두, 수령 형상문학)와 더불어 임화, 이태준, 김남천 그리고 한설야의 숙청을 언급했다는 점

133) 長璋吉, 『お母さん子は告発する-1950年代の韓国文学について』, 『朝鮮文学-紹介と研究』 8, 1972. 10, 58쪽.

이 다르다.¹³⁴⁾ 특집의 해설인 만큼 북한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조선문학』이 북한문학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의 조선, 하나의 조선문학’이라는 자신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 특집은 <조선문학의 회>의 존재 의의를 되묻는 일처럼 보인다. 가지이는 남한이나 일본과의 비교 이전에 북한문학의 “실제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¹³⁵⁾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960년대 후반 이후 달라진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10호에는 오무라의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에세이도 실렸다. 탁구장에서 만난 초등학교,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새마을운동, “년덜머리 나는 식민지기였지만 거기에 자신의 청춘 또한 묻혀 있는 세대”¹³⁶⁾의 복잡한 심사, 술취한 시골 노인의 일본어와 일본군가, 시장의 말싸움 등을 풍경처럼 담았다. 오무라는 1972년 10월의 유신 선포로 인한 정치적 혼동에는 말을 아끼는 대신 소란스러운 삶의 한복판을 응시했다. 10개월간의 한국 체류는 그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었을까? 오무라는 “재외연구를 끝내고 올봄에 귀국했지만 예전 같은 정열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겠다”¹³⁷⁾고 다짐했다. 그러나 “느슨해진 긴장감”¹³⁸⁾은 오무라만의 것이 아니었다.

『조선문학』이 창간되고 한동안은 동인들 자신이 당혹할 정도로 고무적이었다. “근현대 조선문학 분야만은 늘 행하니 큰 구멍이 뚫려 있던” 현실에서 『조선문학』은,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 독자들과 조국의 문화·문학에 갈증을 느끼던 재일조선인 독자들의 눈과 귀를 잡아끌었다.¹³⁹⁾ “일본에서의 한국학이 일제 지배자의 편입(偏執)인 식민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거나 유물론적 사회주의관에 집착하고 있는 경향에 비해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

134) 梶井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文学』,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0, 1973.9, 52~53쪽.

135) 梶井陟, 위의 논문, 45~46쪽.

136) 大村益夫, 『かの地の人々』,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0, 60쪽.

137) 大村益夫, 『自戒をこめて』, 위의 책, 64쪽.

138) 小倉尚, 『バトンタッチの記』, 같은 곳.

139) 大村益夫, 『喜びと、とまどいと-創刊号を出して』, 『朝鮮文学-紹介と研究』 2, 1971.3, 61~63쪽; 『読者からの励まし』, 『朝鮮文学-紹介と研究』 3, 1971.6, 62~63쪽.

은 거의 무지에 가까울 뿐더러 알고자 하는 관심이나 흥미도 별로 없는” 가운데, “한국문학 전문지 『조선문학』에 기대와 회의가 반반”이라는 김병익의 기사도 발췌해 소개했다. 걱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기대가 듬뿍 담긴 웅언이었다.¹⁴⁰⁾

창간 당시부터 계획한 번역 선집은 두 권의 『현대조선문학선』으로 출간됐다. 일본인이 번역한 조선문학 선집으로는 최초의 사례였다.¹⁴¹⁾ 출간 전에는 ‘현대조선 저항문학선’이라는 제목도 고려한 것 같다.¹⁴²⁾ 윤학준은 1권 『해설』에서, 선집에 수록된 작품 대부분이 아주 최근의 작품들이면서 대부분 일본과 관계된 작품이고 또한 저항문학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인정했듯이 뚜렷한 방향성 아래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¹⁴³⁾ 『조선문학』의 번역이 그렇듯이, 넓은 의미에서의 경향과 동인들 각자의 취향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현대조선문학선 I』에 수록된 총 13편의 작품 중 11편이 1960~70년대 한국소설이다. 그 밖에 최명익의 「마천령」(1947)과 류도희의 「행복한 날에」(1962)가 실렸다. 1권의 구성은 『조선문학』에 실렸던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문학』 1~6호의 전재가 6편(「한수전」, 「행복한 날에」, 「목시」, 「죽제비」, 「마록열전」, 「충독의 소리」)이고 나머지 7편 중 남정현의 「사회봉」, 「분지」와 송병수의 「실증」은 윤학준이 저항문학으로 높이 평가한 작품들이다.¹⁴⁴⁾ 동인 결성 이전의 독서모임에서 읽었던 작품들

140) 김병익, 「메마른 일본에 싹트는 한국문학」, 『동아일보』, 1971.7.5; 小倉尚, 「韓国《東亞日報》紙から」, 『朝鮮文学-紹介と研究』 4, 1971.9, 68쪽.

141) 村松武司, 「現代朝鮮文学選1」,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0, 1973.9, 63쪽. (『図書新聞』 73년 3월 10일자 서평의 재수록) 그 밖에도 日野啓三, 金石範, 李恢成, 円谷真護 등이 선집의 서평을 썼다고 한다.

142) “창간호부터 7호까지 6편의 소설을 번역하고 지금은 《현대조선 저항문학선》(가제)을 10월 말쯤 출판할 예정으로 2호와 5호에 실은 줄역 「죽제비」와 「한수전」을 다시 읽고 있다.” 石川節子, 「大根ヤク者」, 『朝鮮文学-紹介と研究』 8, 1972.10, 64쪽. “저항작품을 중심으로, 현대 남북조선의 저항문학 대표작을 망라!” 「近刊予告 現代朝鮮抵抗文学選(仮題)」, 같은 책, 뒤표지.

143) 尹学準, 「解説」, 『朝鮮文学の会訳編』, 『現代朝鮮文学選 I』, 創土社, 1973, 533 및 541쪽. 오무라는 “계통적인 선택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록 작품은 문학으로서의 수준을 갖췄다”고 지평했다. 大村益夫, 「日本における朝鮮現代文学の研究・翻訳小史」, 309쪽.

144) 尹学準, 「現代朝鮮文学の現状と課題(1)-南朝鮮の文学」, 『文学』 32(8), 岩波書店, 1964.8, 131~132쪽; 尹学準, 「作家と現実参与-南朝鮮文学の新しい傾向」, 『朝鮮研究』 44, 1965.10, 13쪽.

로 짐작된다. 나머지 4편인 「청산택」, 「속연」, 「마천령」, 「어떤 파리」도 식민 지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이다. 오구라가 4편, 이시카와가 3편을 번역했다. 조와 가지이가 2편씩, 오무라와 다나카가 1편씩 번역했다.

『현대조선문학선Ⅱ』(1974)는 14편의 수록 작품 중 10편을 해방기 작품으로 채웠다.¹⁴⁵⁾ 윤학준은 해설로 「해방 직후의 문학 상황」을 썼다. 그는 조선문학가동맹·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전조선문필가협회의 갈등과 대립을 설명한 뒤, 임화의 「조선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1930년대 후반 이태준, 정치용 등과의 공동전선이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공동전선에 대해 일부에서는 임화, 김남천 등이 카프를 적에게 팔아 넘기고 퇴폐적인 부르주아 무단 문학에 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계급과 문학이 민족(예술)과 문학에 패배하고 좌절했다는 식으로 무단의 당파 싸움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우익반동 문학사가들의 사고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¹⁴⁶⁾

윤학준의 전향적인 평가는 당돌한 감이 없지 않다. 그는 임화의 문학사 평가나 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을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임화, 김남천 등에 대한 『통사』의 비난이 조연현 등의 우익적 사고와 통한다고 쏘아붙였다. 『문장』을 “1939년 2월 서울에서 창간되어 민족어가 부정되려고 할 때 조선어를 지키고 예술성 높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은 문학 잡지”¹⁴⁷⁾로 평가한 문구도

145) 10편 중 7편이 조선문학가동맹 계열 작품으로, 기관지 『文学』에서 3편(「해방전후」, 「담뱃국」, 「3·1 운동」), 조선문학가동맹에서 간행한 『조선소설집』(1947)에서 4편(「춘보」, 「소」, 「물쌈」, 「미스터 방」)을 번역했다. 그 밖에 『해방문학선집』(1948)에서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와 「혈거가족」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문화전선』 1호(1946)에서 「개벽」을 뽑아 번역했다. 이기영의 「개벽」은 문학가동맹에서 발간한 『농민소설집 토지』(1947)에도 수록되어 있다. 해방기 이외의 작품으로는 황순원의 「곡예사」(1951), 김성환의 「바비도」(1956), 박연희의 「방황」(1962), 윤세중의 「상아 파이프」(1956)가 실렸다.

146) 尹学準, 「解放直後の文学狀況-解説にかえて」, 朝鮮文学の会訳編, 『現代朝鮮文学選Ⅱ』, 創土社, 1974, 526쪽.

예사롭지는 않다. <조선문학의 회> 동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 되었을까? 선집 2권이 해방기 작품, 그것도 조선문학가동맹 관련 작품을 집중적으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학준이나 동인들은 문학가동맹이나 선집 2권의 구성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판매 부진으로 2권의 상당수가 폐기되는 사정¹⁴⁸⁾까지 겹치면서 기획의 문제 의식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해방기를 ‘하나의 조선문학’이라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았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따름이다.

1972년 무렵부터 『조선문학』 판매 상황도 나빠졌다. 재정적인 압박이 점차 심해졌을 뿐 아니라¹⁴⁹⁾ 발행과 판매에 얽힌 동인들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소개와 연구라는 부제를 달았지만 연구면에서는 결정적으로 뒤쳐지고 있다”는 압박감도 커졌다.¹⁵⁰⁾ 결국 『조선문학』은 11호를 내면서 12호를 중간호로 발간할 것이라는 예고를 낸다. 11호는 ‘현대문학’ 특집으로 1972년에서 1973년 사이에 발표된 남쪽의 소설과 시를 실었고, 12호는 아동문학 특집으로 남북 작품을 아울러 편성했다. 중간 결정에는 동인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가지이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다수는 중간에 찬성했던 것 같다. 조는 연구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했다.¹⁵¹⁾

『조선문학』에 게재된 글 중 연구와 관련된 것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몇 의미 있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근대문학 자료 안내>라는 기획 아래 나온 『《창조》에 대하여』(가지이, 5호), 『《백조》와 그 동인들』(오무라, 6호)은 잡지 전체를 꼼꼼히 살핀 후의 성과였다. 『문장』과 『문학』 복사본 광고(4호)도 모임 혹은 개인 차원에서 학술적 기초를 닦으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일본유학시대의 이광수』(오무라, 5호)는 이광수의 와세다대학 시절 성적표와 그의 일본어소설 『사랑인가』를 게재했다. 송민호, 임현영, 김현, 김

147) 『雑誌(複写)をお分けます』, 『朝鮮文学-紹介と研究』 4, 1971.9, 27쪽. 『文章』과 더불어, 『文学』도 복사 자료를 만들었다. 선집 번역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48) 大村益夫, 『朝鮮文学研究を志して五十年』, 67쪽.

149) 11호를 낼 무렵부터 인쇄 비용이 급등해 12호를 낼 때는 『現代朝鮮文学選Ⅱ』의 원고료까지 들어갔다. 石川節子, 『終刊に際して-じり貧の弁』,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2, 1974.8, 71쪽.

150) 大村益夫, 『謝辞その他』, 위의 책, 73~74쪽.

151) 長璋吉, 『小辞典を終えて』,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1, 1974.1, 72쪽.

윤식, 김우종의 평론을 번역하거나 조, 가지이, 오무라가 특집 해설을 쓰는 등 근현대 조선문학을 조감하려는 노력이 더해졌다. 『일본 속의 조선문학』(12호)에서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다이쇼기 조선문학 편찬 작업에 주목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¹⁵²⁾

12호의 마지막에는 ‘중간을 맞이하여-동인의 말’이라는 제목 아래 오구라, 이시카와, 오무라, 조가 중간의 소회를 적었다. 오구라와 이시카와가 3년 8개월에 걸친 잡지 발간의 어려움과 이쉬움을 털어놓았다. 오무라는 <조선문학의 회>의 역사와 잡지 발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¹⁵³⁾ 잡지 발간을 그만 두지만 <조선문학의 회>는 해산하지 않고 연구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조는 김윤식의 글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인용된 글에서 김윤식은 <조선문학의 회> 내부의 ‘세대 문제’, 요컨대 “이들 세대가 순수한 전후 세대의 집단이나, 아니면 전중(戰中) 혹은 전전(戰前) 세대의 집단이나”를 물었다.¹⁵⁴⁾

지금까지 『조선문학』을 중심으로 3년 8개월에 걸친 <조선문학의 회>의 활동을 살펴봤다. 중간 후 <조선문학의 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인 중 가지이, 오무라, 조가 중단 없이 조선문학연구에 정진했다. 특히 오무라와 조는 한동안 연구서 번역에 힘을 쏟았다. 오무라는 1975년에 김윤식의 『한일문학의 관련양상』(1974) 일부와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연구』(1973)의 부록인 『입화연구』를 묶어 『상흔과 극복』으로 번역하고¹⁵⁵⁾ 그 이듬해에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번역했다. 조도 1975년에 김우종의 『한국현대소설사』를 번역했다. 원래는 번역에 맞춰 김우종이 해방 이후 부분을 개정·증보할 계획이었지만 1974년 1월 이른바 ‘문단간첩단’ 사건으로 저자가 영어의 몸이 되면서 결국 1968년에 나온 초판을 번역해야만 했다.¹⁵⁶⁾

152) 梶井陟, 『日本のなかの朝鮮文学-その一』,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2, 58~60쪽.

153) 大村益夫, 앞의 논문, 73~76쪽. 그 내용은 이미 3, 4장에서 검토했다.

154) 長璋吉, 『会への批判』, 『朝鮮文学-紹介と研究』 12, 72쪽.

155) 金允植, 大村益夫訳, 『傷痕と克服-韓国の文学者と日本』, 朝日新聞社, 1975.

오무라와 조의 연구서 번역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우선,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와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이후의 연구 성과를 본격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조선문학통사』와 조연현의 문학사가 체제 대립에 따른 결락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김우종의 문학사는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동인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친일 문제를 직격한 임종국과 김윤식의 저서 역시 문학사의 공백을 메워 줄 성과라는 점에서 문학사 연구의 새로운 단계로 인식되었다. 한편, 연구서의 번역은 분과학문의 기초를 닦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오무라, 조는 이미 자신들의 논문에서 김윤식, 임종국, 김우종의 연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연구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지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역주를 다는 치밀한 작업을 거듭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학술적 토대를 준비했다. 또 한 번의 도약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5. 나가며

전후 일본의 조선근대문학연구는 새로운 조선연구의 흐름 속에서 시작됐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의 문학연구회 활동과 <조선문학의 모임>(1963~64)을 거쳐 1970년 <조선문학의 회> 결성과 동인지 발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모임의 활동 양상과 모임에 참여한 성원들의 인식 변화 과정을 함께 살폈다. 1967년 6월의 ‘한설야 문제’는 문학연구회의 활동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조선문학의 회>는 문학연구회의 환골탈태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지만, 주

156) 조는 김우종의 문학사를 번역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무렵 현대문학사로는 백철 씨의 『신문학사조사』와 조연현 씨의 『한국현대문학사』, 이 두 권이 유명했다. 그러나 한국문학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나로서는 둘 다 기술이 번잡하고 읽기 힘든 저서였다. 입문용으로 좀 더 읽기 쉬운 걸 찾다가 우연히 책방에서 김우종 씨의 책을 발견했다.” 長璋吉, 『訳者のあとがき』, 『韓国現代小説史』, 443쪽.

체성을 강조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문학을 번역하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일치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주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동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2장과 3장에서 보았듯이,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통감하는 당사자적 태도가 부각되기도 하고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주체의 적극적인 태도가 강조되기도 한다. 전자는 조선문학이 외국문학의 하나이지만 여느 외국문학과는 다른 것이어야 함을 역설하는데, 후자는 외국문학이라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왜 조선문학에서는 예외적이었고 여전히 예외적인가를 따져 묻는다. 한쪽이 역사 인식과 윤리적 감각을 중요시했다면 다른 한쪽은 변화하는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두 입장의 긴장은 오래된 문제이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주장으로 언어화되지는 못했지만 역사나 국제 관계보다 문학적인 감각을 강조하는 입장까지 더해지면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학보다는 문학 일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앞의 두 입장과는 다른 견지에 서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외국문학을 읽다 보면 외국 사정의 탐색이라는 목적을 망각한 채 문학이라는 고약한 샷길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조선문학의 회> 안에는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 생각들의 차이를 깊이 논의하지 못하고 그 일단을 드러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 『民主朝鮮』, 『朝鮮評論』, 『柿の会月報』, 『朝鮮研究月報』, 『朝鮮研究』
 『朝鮮と文学』, 『朝鮮文学一紹介と研究』, 『동아일보』, 『朝日アジアレビュー』
 『현대조선문학선집』(조선작가동맹출판사), 『한국단편문학선집』(백수사)
 『富山大学附属図書館蔵梶井文庫日録』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1939-1945 評論・随筆篇』(大村益夫・布袋敏博編)

2. 단행본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통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출판사, 1959.
 김윤식,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_____, 『백철연구』, 소명출판, 2008.
 류도희, 『행복한 날에』, 문예출판사, 1988.
 白 鐵, 『朝鮮新文学思潮史』, 首善社, 1948.
 _____, 『朝鮮新文学思潮史(現代編)』, 白楊堂, 1949.
 _____, 『新文学思潮史(増補)』, 民衆書館, 1955.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 소명출판, 2016~2018.
 와타나베 나오키, 『입화문학 비평-프롤레타리아문학과 식민지적 주제』, 소명출판, 2018.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全卷』, 人間社, 1961.
 廣瀬陽一, 『金達寿伝：日本のなかの朝鮮』, クレイン, 2019.
 金宇鍾, 長璋吉訳, 『韓国現代小説史』, 龍溪書舎, 1975.
 金允植, 大村益夫訳, 『傷痕と克服-韓国の文学者と日本』, 朝日新聞社, 1975.
 大村益夫, 『朝鮮近代文学と日本』, 緑蔭書房, 2003.
 梶井陟, 『朝鮮人学校の日本人教師』, 日本朝鮮研究所, 1966.
 寺尾五郎・安藤彦太郎他, 『日・朝・中三国人民連帯の歴史と理論』, 日本朝鮮研究所, 1964.6.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 岩波書店, 2014.
 林鍾国, 大村益夫訳, 『親日文学論』, 高麗書林, 1976.
 長璋吉, 『私の朝鮮語小辞典：ソウル遊学記』, 北洋社, 1973.
 _____, 『朝鮮・言葉・人間』, 河出書房新社, 1989.
 田中明, 『ソウル実感録』, 北洋社, 1975.
 _____, 『常識的朝鮮論のすすめ』, 朝日新聞社, 1981.
 井上秀雄・長正統・秋定嘉和編, 『セミナー日本と朝鮮の歴史』, 東出版, 1972.
 井上學・樋口雄一編, 『日本朝鮮研究所初期資料(1961~69)』, 緑蔭書房, 2017.
 朝鮮文学の会編訳, 『現代朝鮮文学選Ⅱ』, 創土社, 1973~74.
 竹内好, 『竹内好全集 第16巻 日記(下)』, 筑摩書房, 1981.
 樋口雄一編, 『協和会関係資料集Ⅱ』, 緑蔭書房, 1991.

3. 논문

- 곽형덕, 『저자 인터뷰-조선문학 연구자 오무라 미스오의 삶과 문학』, 곽형덕 옮김, 『오무라 미스오 저작집 4』, 소명출판, 2017.
- 미쓰이 다카시,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사학사상(像)-1950~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3, 한국사연구회, 2011.6.
- _____, 『근대 조선사학사 인식에서 본 가지무라 히데키』, 강원봉·홍종욱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아연출판부, 2014.
- 심원섭, 『오무라 미스오 교수를 찾아서』, 『문학과이식』, 문학과이식사, 2008. 여름.
- 오무라 미스오·호테이 토시히로, 『대담-한국문학에서 일본은 무엇인가』(1998), 곽형덕 옮김, 『오무라 미스오 저작집 4』, 소명출판, 2017.
- 이영호, 『1970년대 일본에서의 조선문학 연구 경향 분석』, 『일본학보』 107, 한국일본학회, 2016.5.
- 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문제-《朝鮮文藝》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2006.4.
- 전용호, 『백철 문학사의 판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12.
-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오무라 미스오 교수에게 질문하다』, 『한국학연구』 4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3.
- _____, 『조선문학을 권함-《오무라 미스오 저작집》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재구성』, 『한국학연구』 5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8.
-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현대문학연구-역사적 반성 및 협동연구 전망』,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 장미현,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의 '식민사상' 제기와 '고도성장체제' 비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27, 역사비평사, 2012.상반기.
- 정중현, 『조선학/한국학의 국교정상화-한국학자들의 '조선학회' 연차대회 참가와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 차승기, 『가지무라 히데키의 '미발의 계기』, 강원봉·홍종욱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아연출판부, 2014.
- 호테이 토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1945~19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인문논총』 4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 홍종욱,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한국사학회, 2017.3.
- 康玄哲, 『朝鮮近代文學의 史的展望』, 『朝鮮評論』 2~5, 朝鮮人文化協會, 1952.2~9.
- 高柳俊男, 『渡日初期の尹學準 - 密航・法政大學・帰国事業』, 『異文化』 5, 法政大學國際文化學部, 2004.
- 菅野裕臣, 『朝鮮語教授の若干の問題点』, 『朝鮮研究月報』 15, 日本朝鮮研究所, 1963.3.
- 吉野誠, 『朝鮮史研究における内面的發展論』, 『東海大學紀要文學部』 47, 東海大學文學部, 1987.
- 大村益夫, 『1920年代の朝鮮文學 - プロレタリア文學と'民族主義文學』, 『文學』 33(11), 岩波書店, 1965.11.
- _____,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社会科学討究』 43, 早稲田大學社会科学研究所, 1970.3.
- _____, 『奪われし野の奪われぬ心 - 解放前の朝鮮近代文學』, 『文學』 38(11), 岩波書店, 1970.11.

- _____, 『文学史をめぐる二、三の問題』, 『코리아評論』 25(242), 코리아評論社, 1982.5.
- _____, 『日本における朝鮮現代文学の研究・翻訳小史』, 『靑丘学術論集』 1, 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1991.2.
- _____, 『朝鮮文学研究を志して五十年』, 『植民地文化研究—資料と分析』 18, 植民地文化学会, 2019.
- 梶井陟, 『朝鮮近代文学の歩み』, 『朝鮮研究』 34, 日本朝鮮研究所, 1964.11.
- _____, 『朝鮮文学研究会の歩み(1~8)』, 『朝鮮研究』 95~106, 1970.6~71.7.
- _____, 『社会主義建設の人間像—解放後の北朝鮮文学』, 『文学』 38(11), 1970.11.
- _____, 『朝鮮文学の会(東京)』, 『新日本文学』 27(8), 新日本文学会, 1972.8.
- _____, 『〈新日本文学〉のなかの朝鮮文学』, 『新日本文学』 31(4), 新日本文学会, 1976.4.
- _____, 『朝鮮文学翻訳の足跡(11)』, 『季刊三千里』 32, 三千里社, 1982.11.
- 梶村秀樹, 『日本における朝鮮研究』(1969),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明石書店, 1993.
- _____, 『朝鮮語で語られる世界』(1975), 『梶村秀樹著作集 第1巻』, 明石書店, 1992.
- _____, 『日本帝国主義の問題』(1977), 『梶村秀樹著作集 第2巻』, 明石書店, 1993.
- 木下降男, 『長璋吉—普段着の朝鮮語をめざして』, 館野哲編, 『36人の日本人 韓国・朝鮮へのまなざし』, 明石書店, 2005.
- 朴春日, 『現代朝鮮文学の現状と課題(2)—共和国北半部の文学』, 『文学』 32(9), 岩波書店, 1964.9.
- 寺尾五郎, 『運動と研究における日本人の立場・朝鮮人の立場』, 『朝鮮研究月報』 13, 日本朝鮮研究所, 1963.1.
- 山田明(田中明), 『朝鮮文学への日本人のかかわり方』, 『文学』 38(11), 岩波書店, 1970.11.
- _____, 『《朝鮮文学—紹介と研究》の発刊』, 『人間として』 5, 筑摩書房, 1971.3.
- 三ツ井崇, 『梶井陟—日本人にとっての朝鮮語を考える』, 館野哲編, 『36人の日本人 韓国・朝鮮へのまなざし』, 明石書店, 2005.
- 尹学準, 『現代朝鮮文学の現状と課題(1)—南朝鮮の文学』, 『文学』 32(8), 岩波書店, 1964.8.
- _____, 『作家と現実参与—南朝鮮文学の新しい傾向』, 『朝鮮研究』 44, 1965.10.
- _____, 『日本人と朝鮮語—大村益夫さんと私』, 『民主文学』 23, 新日本出版社, 1967.10.
- _____, 『現実参与をめぐる—今日の南朝鮮文学』, 『文学』 38(11), 岩波書店, 1970.11.
- _____, 『梶井陟さんのこと, <朝鮮文学の会>のこと』, 『季刊 서울—東京』 12, 서울—東京編集委員会, 1988.
- _____, 『錦鯉たちとどじょう—匹—長璋吉の死を悼みつつ』, 『季刊 서울—東京』 13, 서울—東京編集委員会, 1989.
- 長璋吉, 『雑感』, 『글방』 1, 現代語学塾, 1975.8.
- 川村湊, 『日本人による朝鮮文学研究(五人+一人)の始まり』, 『異文化』 5, 法政大学国際化学部, 2004.
- 塚本勲, 『日本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状とその展望』, 『当面の朝鮮に関する資料(第二集)』, 日本朝鮮研究所, 1961.12.
- 板垣竜太, 『日韓会谈反対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日本朝鮮研究所の植民地主義論を中心に—』, 『思想』 1029, 岩波書店, 2010.1.
- 和田春樹, 『日本朝鮮研究所を考える』, 和田春樹・高崎宗司, 『検証日韓関係60年史』, 明石書店, 2005.
- ナカガミ ヒデコ, 『朝鮮文学の翻訳と私』, 『樹木』 1, 樹木社, 1963.2.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文学研究の成立と展開

—「朝鮮文学の会」を中心に—

崔泰源*

本稿は「朝鮮文学の会」を中心に、戦後日本における日本人による朝鮮近代文学研究の成立過程を論じたものである。1960年代の日本では植民地主義、あるいは植民地支配の責任の自覚から自らを戦前の朝鮮学と区別しようとする、時代的かつ集団的な傾向がみられたが、外国学としての朝鮮近代文学研究もそうした流れの中で動き始めた。つまり、1960年代初頭の日本朝鮮研究所内の文学研究会と「朝鮮文学の会」(1963~64)、そして1960年代半ば以降の読書会及び文学史勉強会を経て、「朝鮮文学の会」が1970年に結成されたのである。「日本人による朝鮮文学研究」と「一つの朝鮮文学」を掲げる「朝鮮文学の会」は、およそ4年にわたって同人誌『朝鮮文学-紹介と文学』や『現代朝鮮文学選』を発刊することで、近現代朝鮮文学の翻訳と紹介に努めた。大村益夫、梶井陟、田中明、長璋吉など、会のメンバーたちは様々な職業や信条を持つ素人だったが、彼らの活動は外国文学という自覚のもとに、朝鮮文学を翻訳及び研究した最初の事例であった。会のメンバーたちは、明治期以来の日本人の朝鮮文学へのかかわり方が、一貫して主体性を欠いていたことを批判し、日本人自身による朝鮮文学の翻訳と自らの価値判断の重要性を強調した。このような主体性の強調は、文学研究における南北韓の分断と、その分断による文学史の欠落への認識へと繋がった。彼らは絶え間なく南北韓の研究成果を参考にしながらも、独自の立場から理念的対立による文学史の空白を埋める努力を惜しまなかった。厳しい条件の中、同人誌は12号で終刊を余儀なくされたが、その後も一部のメンバーは翻訳と研究を続け、着実

* The University of Tokyo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Project Associate Professor

に学術的基礎を築いた。その結果、1970年代末に彼らは大学教員として着任することになる。遅まきながら、朝鮮近代文学研究が日本の学術制度の一部として認められたのであった。

キーワード : 朝鮮近代文学研究, 朝鮮文学の会, 主体性, 日本朝鮮研究所, 大村益夫, 梶井陟, 田中明, 長璋吉